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1호 2026년 07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경기도 이민행정에 '공정·혁신·포용의 가치' 적용해야!

△민선 9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경기도 이민행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대표 오경석)는 지난 7월 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공정혁신포용 기반의 경기도 이민행정'을 주제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9기 경기도정 기조인 공정혁신포용을 이민행정에 적용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행정 모델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관련 기사 2면 송하성 기자

경기도,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들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도화했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병원 이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국제수가 적용으로 진료비가 높아지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까지 겹치면서 증상이 있어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건강 악화뿐 아니라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우선지원 대상 규정 ▲협력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 ▲의료통역 및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우선 협력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실제 진료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통역·동행·상담·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해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상 필요한 진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의료지원 연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또는 확진자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 밖에 놓인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제도와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해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치료 지연과 지역사회 보건안전 위험 감소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용인 11~13 구리 14~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광명 22~25 이천 26~27 평택 28~32

중국어 中文 15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23 러시아어 Русский 2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29 영어(English) 5, 29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3, 6, 20, 25 나의 학습 My Study 8, 17, 24, 27, 30 이주배경청소년 7 외국인주민 4, 13 교육 Education 3 주거 Residence 14 여가 9, 11 보건 Health 1, 28 도서관 Library 5, 13, 23 행사 Event 2, 10 인권 15, 29 국제교류 9, 19 육아 21 동포 12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지역기반 이민행정 모델 논의하는 네트워크 포럼 개최

민선 9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인 '공정·혁신·포용'을 경기도 이민행정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대표 오경석)는 지난 7월 9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공정·혁신·포용 기반의 경기도 이민행정'을 주제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9기 경기도정 기조인 공정·혁신·포용을 이민행정에 적용하고 지역 주도의 이민행정 모델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오경석 대표는 지역 기반 이민행정의 비전으로 '모든 도민이 참여와 기여의 권리를 공유하는 경기도형 이민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오 대표는 공정 분야 과제로 행정서비스 대상을 주민등록자에서 외국인등록자와 거소등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 분야에서는 이민행정 전담부서를 기능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이민정책을 조정하는 '이민사회특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포용 분야 과제로는 혐오·차별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적이나 주민등록 여부보다 지역사회 거주를 기준으로 권리를 논의하는 '주민권' 담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의 발제는 외국인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를 다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이민행정 조직과 재정 확충,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유정균 인구사회연구실장은 이민행정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장은 거주자 중심의 공동체 담론 확산과 전담인력 확충, 가족센터 등 지역 전달체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경혜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이민행정 전달체계의 지역화를 위해 조직과 재정,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 김용국 회장은 지역 이민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려면 지원단체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민선9기 도정 가치가 경기도 이민행정에 관철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기반 이민행정의 선구적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형 지역 주도 이민행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송하성 기자

전자영 의원, 자원재활용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학교와 지역 '벽깨기'로 확산해야



전자영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구갈·상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급식 잔식(예비식)기부 사업이 지자체 행정 벽에 부딪혀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14일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용인교육지원청 학교급식팀, 성지고등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학교급식 잔식(예비식) 기부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 급식 기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학교급식 잔식(예비식) 기부를 푸드뱅크 등 전담인력이 학교 급식 잔식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오던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안전한 기부 환경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AI기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살펴봤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사업이 바로 학교와 지역의 '벽깨기'로 확산시켜야 한다"며 "각 학교에서 학교급식 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급식 조리 과정에서 남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친환경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역시 "의회에서 학교급식 나눔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용인시 및 용인교육지원청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대상자 변화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 연계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우리봉사단 평가회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6월 26일 다우리봉사단원과 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다우리봉사단 상반기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상반기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안전한 가정방문을 위한 대응방안과 하반기 활동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우리봉사단은 올해 상반기 신규 9가정과 기존 9가정 등 총 18가정을 대상으로 51회의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안부와 건강상태, 주거환경 및 생활 변화를 확인해 센터와 공유했으며,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활용해 생필품, 의류, 의료비·약제비 및 가스레인지 설치 등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했다.

센터는 평가회에서 가정방문 시 2인 1조 활동, 위험상황 발생 시 현장 이탈과 112·119 신고, 봉사자의 개인적인 금전·물품 지원 금지, 대상자 개인정보 보호 및 위기상황 발생 후 센터 보고 등의 기준을 담은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을 공유했다.

센터는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다우리봉사단이 보다 안전하게 가정방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시니어 및 다문화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등의 교육·문화프로그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수원 남문시장, '글로벌 백년시장'으로 거듭난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수원남문시장을 '글로벌 백년시장'으로 만들어 나간다. 수원시는 11일 팔달구 지동교 일원에서 '백년시장 비전선포식'을 열고, '수원남문 백년시장'의 출범을 알렸다.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국비·시비 각 20억 원)을 투입해 수원남문시장을 '왕의 시장'으로 새로 단장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체류형 관광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비전은 '세계를 여는 수원 백년남문시장-정조의 개혁을 품고, 세계로 향하다'이다. 수원남문시장의 역사·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랜드마크, 내외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인 '백년시장'은 전국의 70년 이상 된 전통시장 중 경제·문화·사회적 랜드마크로 재해석돼 향후 백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수원남문시장 컨소시엄(수원시·수원남문시장·수원도시재단)은 지난해 12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백년시장)'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최극렬 수원시상인연합회장이 수원남문시장 비전을 선포했다. 이들은 "수원남문시장을 정조의 개혁 정신을 품고, 세계를 여는 수원 백년남문시장으로 키워가겠다"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상인이 다시 힘을 얻는 시장, 관광객이 머물러 소비하는 시장, 세계인이 찾아오는 글로벌 백년시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수원남문시장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시장 ▲밤에도 활력이 넘치는 시장 ▲상인이 주인공이 되는 지속가능한 시장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도 남문시장의 도약을 기대했다. 이지은 기자

수원다가, 학교생활 지원 중고교 진학과정 설명회



지난 6월 20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자녀의 학교 진급을 앞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가 자녀의 진학과 성장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업·평가 방법, 지역 내 학교 현황 등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자녀와의 소통 방법 및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과정에서는 대학입학전형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부모들이 진학과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묻고 답하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진학 정보를 이해하고,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 설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지은 기자

수원특례시, 영유아 가족 '새빛 지구놀이터' 운영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새빛 지구놀이터'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새빛 지구놀이터는 부모와 함께하는 실천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어린이집 16개소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방문교육, 가정 연계 친환경 실천 활동으로 이뤄진다.

교육을 받은 가족은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고 활동지를 작성한다. 어린이집은 실천 결과를 모니터링·취합해 제출하고, 수원시는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광교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전문강사가 방문해 '지렁이 탄소 수사대'를 주제로 체험교육을 한다. 영유아와 부모가 지렁이가 되어 탄소 발생 원인을 몸으로 체험하며 탄소중립의 의미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2026년 1학기 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수료식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6월 26일, 2026년 1학기 이주여성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고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3월 17일부터 6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총 28회 운영되었으며, 초급 1·2·3반과 중급 1·2반 등 총 5개 반에서 68명의 이주여성이 공부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한 이번 교육에서는 50명이 수료했으며, 10명의 교육생이 전 과정 개근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루었다. 수료식에서는 각 반 대표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성실한 학습과 모범적인 참여를 보여준 교육생들에게 센터장상과 운영위원장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함께 축하했다.

양해규 센터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교육생들은 서로의 성장을 축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누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어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의 2026년 2학기 이주여성 한국어교육은 8월 18일에 개강하며 신청은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수원글청, 내:일체험 진로한국어 심화활동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최근 경기사랑의열매 내:일캠퍼스 진로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심화활동 「내:일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굿네이버스 경기수원지부 좋은이웃후원회의 재능기부 연계를 통해 진행됐으며, 바리스타(카페화홍)와 뷰티 분야(이끌림라운지)의 직업체험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바리스타 체험에서는 커피에 대한 기초 이론과 바리스타의 역할을 배우고 음료 제조를 직접 실습했으며, 뷰티 체험에서는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실습을 통해 뷰티 분야의 업무를 이해하고 실무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무를 직접 경험하며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확인하며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날 활동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지은 기자

수원외복-미디어센터, 이주민 미디어 접근성 향상 및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협약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와 수원시미디어센터(센터장 오수정)는 지난 6월 18일 이주민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 및 문화 콘텐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민 미디어 접근권 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운영 ▲이주민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및 공간 활성화 ▲시설·장비·인적자원 등 인프라 공유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현재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지역사회 적응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들이 미디어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미디어센터는 시민 누구나 미디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 활동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소통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상호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사회참여와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정 센터장은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며 "이주민들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화 다양성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수원시청 1899-3300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257-8504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3-0075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031-247-1324 수원이주민센터 070-8671-3111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070-7523-3686 수원교육지원청 031-250-1335 수원여성의전화 031-232-7795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231-7864 범죄신고 112 수원서부경찰서 031-8012-0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The nearest summer getaway this year is our neighborhood library!

Public libraries in 31 cities and counties across Gyeonggi Province are hosting a variety of events and programs to help residents escape the sweltering heat during the summer vacation and holiday season. Foreign residents are also encouraged to escape the heat at the library with their children this summer.

This summer, public libraries ar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as "complex cultural summer retreats" where residents can recharge culturally, going beyond the role of mere reading spaces.

Gyeonggi Provincial Library will operate a ‘Late Night Library’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in July and August to host an all-night reading camp. In addition, it plans to set up a ‘Media Art Shelter (LED wall and ASMR sound)’ themed around a digital oasis, allowing residents to enjoy both relaxation and cultural experiences in a cool indoor space.

Public libraries in the province are hosting a variety of cultural programs, including jazz humanities performances, reading concerts, and original artwork exhibitions, as well as children's reading classes, makerspace experiences, family concerts, and puppet shows.

Pyeongtaek City's Jisan Green Library will host the "Let's Follow the Moonlight into the Forest" ecological experience program for families in the forest near the library during the evening hours on July 24. Participants can enjoy a unique reading culture experience while observing the forest ecosystem on a midsummer night.

Suwon City's Seosuwon Library will operate the "Let's Play in Summer! Picture Book Art Playground" from August 3 to 6 for first and second-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ere they can read, create, and move with picture book authors.

Anseong City's Bogae Library will operate the "Nighttime Opening Night Reading Goblin" until midnight on August 14, the last day of the dog days of summer, and Guri City is taking steps to prevent heat-related illnesses caused by the heatwave by operating an "conscience parasol" rental service for public library us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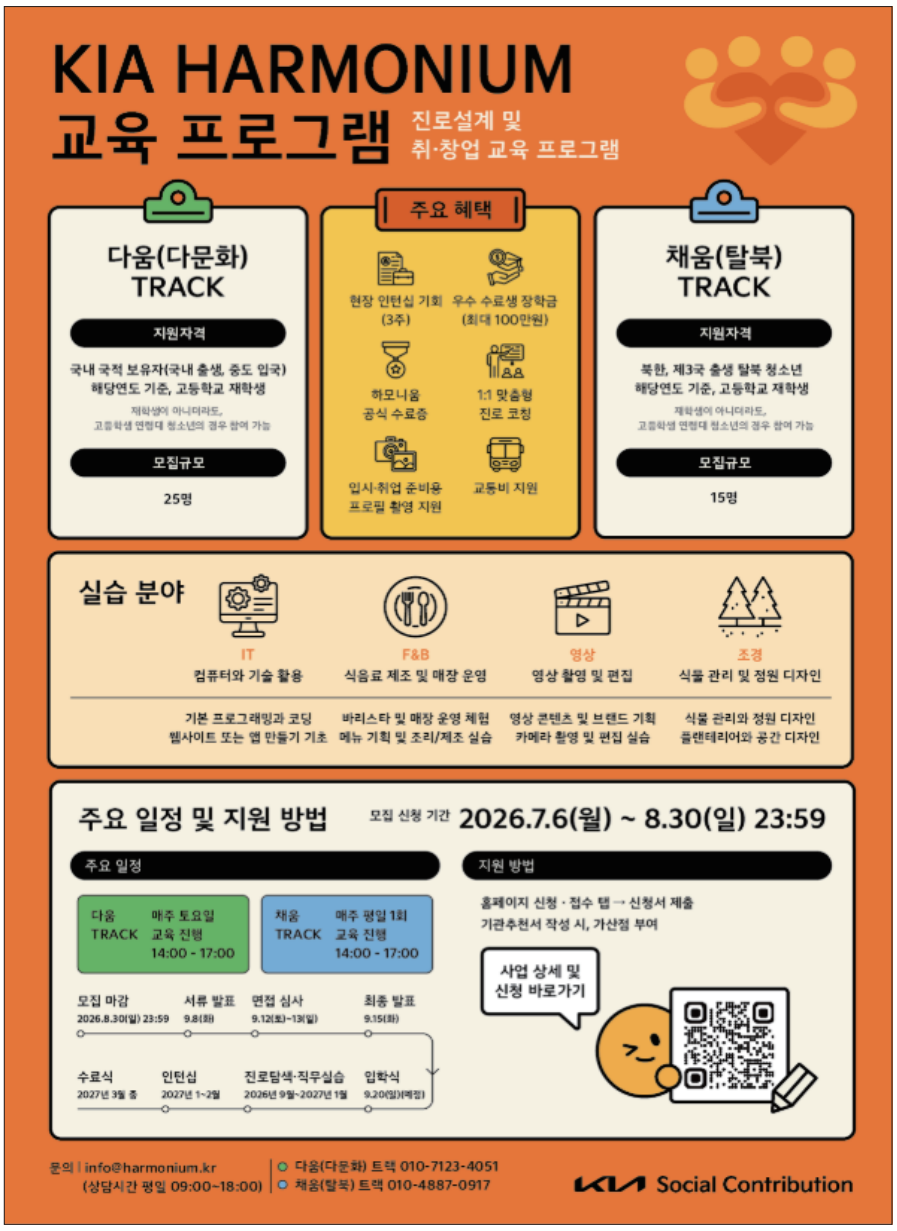
Small libraries located close to residential area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sponding to heatwaves. Through the ‘Small Library Heatwave and Cold Weather Shelter Operation Project,’ Gyeonggi Province provides heating and cooling costs to 340 small libraries within the province and operates them as open shelters accessible to everyone. The allocated budget is used for cooling expenses, such as electricity bills, allowing residents to spend the summer with books while taking a cool rest at nearby libraries.

Yoon Myung-hee, Director of the Gyeonggi Provincial Library, stated, “In a situation where heatwaves are becoming commonplace due to climate change, libraries are spaces where all residents can stay safely and comfortably,” adding, “I hope residents will spend a cool and enriching summer through various programs that combine books and culture.”

Meanwhile,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the schedule and participation methods for summer reading culture programs can be found on the Gyeonggi Provincial Library website (library.kr) and the websites of each city and county public library. 〈한글 지난호 1면〉

Song Hasung Reporter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汽车综合检查指南

"Daily Suwon: 일상의 시작"
"Daily Suwon : 开启在水原的日常生活"

담당부서 : 负责部门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 水原市汽车登录科 (☎031-5191-1564)

구 분 区分	내 용 内容
준수사항 遵守事项	자동차 소유자는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이전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함 车主与实际运行与否无关,在车辆转移登记或注销登记之前必须要定期接受综合检查 부득이한 사유(해외 체류, 차량 수리, 병원 입원 등)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검사 기간 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因不得已的原因(海外滞留,车辆修理,住院等)无法驾驶汽车时,检查期间内经官方批准可延长检查有效期 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뒷면 또는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检查期间在汽车登记证背面或网络检查所(https://www.cyberts.kr/)上可以随时确认
처벌내용 处罚内容	자동차 종합 검사 미이행자는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未履行汽车综合检查者根据检查延迟时间最多被处以60万韩元的罚款 사전 의견 제출 기간 내 납부할 경우 과태료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 경과 시에는 매월 가산금이 추가됨(최대 75%) 在事前提出意见期间内缴纳时,可减免20%的罚款,超过缴纳期限时每月会发生追加金(最多75%) 자동차 검사명령 위반 시, 자동차 운행정지(1년 이상 경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违反汽车检查命令时,可处汽车停止运行(超过1年以上),1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韩元以下罚款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相关法令 : 《汽车管理法》第43条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안내
擅自弃置车辆处理通知

2026年外国居民生活指南

담당부서 : 负责部门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 水原市汽车登录科 (☎031-5191-1585)

구 분 区分	내 용 内容
준수사항 遵守事项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禁止因无运输目的将汽车总是放置在固定地点 자동차를 계속해서 도로에 방치 불가함 禁止汽车持续放置在道路上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불가함 无正当理由,禁止机动车在他人的土地上闲置2个月以上
처벌내용 处罚内容	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81조 제8호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对机动车闲置行为者,依照机动车管理法第26条和第85条处以罚款。 未缴纳时,依照法令第81条第8项可处1年以下有期徒刑或1千万元以下罚款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相关法令:《汽车管理法》第26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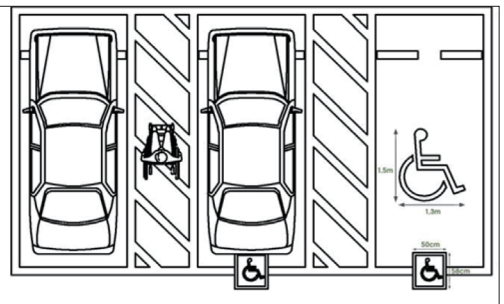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违反残疾人专业停车区规定的处罚制度

담당부서 : 负责部门
장안구 사회복지과 : 长安区社会福利科(☎031-5191-5472)
권선구 사회복지과 : 劝善区社会福利科(☎031-5191-6315)
팔달구 사회복지과 : 八达区社会福利科(☎031-5191-7290)
영통구 사회복지과 : 灵通区社会福利科 (☎031-5191-8866)

준수사항 遵守事项

-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만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가능함
  只有具有"可停车"标志的残疾人车辆可以使用残疾人停车区
- '주차 가능'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함
  使具有"可停车"标志残疾人车辆的车主,也要遵守不开车或不在车上时禁止使用残疾人停车区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함
  如果双重停车阻碍了残疾人专用停车位,将处以罚款





과태료 기준 罚金规则

구 분 区分	내 용 内容	과태료 罚金
주차위반 违反停车规定	-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 规定区域内停放没有停车标志的车辆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미탑승 造成步行残疾人行走障碍·	10만 원 10万元
주차방해 停车不当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재 在残疾人专用停车区域内装载货物 - 이중주차 등으로 인한 진입 방해 因双重停车不当而妨碍前进	50만 원 50万元
표지위반 违规	- 부정 사용(표지 위조 및 변조) 欺诈(伪造和篡改) - 부당 사용(표지 대여 및 양도) 不正当使用(包括出租和转让)	200만 원 200万元

※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 关联法令 :《促进保障残疾人,老年人,孕妇等的便利法》第17条

VISIT SUWON YEAR 2026-2027 SUWON 수원 방문의 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 신청
尾气排放5级车辆限行及申请低公害措施

담당부서 : 负责部门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 水原市气候能源科 (☎031-5191-2968)

준수사항 遵守事項

구 분 区分	내 용 内容		
제도개요 制度概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尾气排放5级车辆限行 단속시기 管制期间 - 계절 관리제 기간(12~3월) 06~21시 季节管理制期间(12~3月) 06~21点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21시 雾霾紧急减低设施发布时 06~21点 ※주말, 공휴일 미시행 周末, 公休日未实行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管制对象 : 全国5等级车辆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排除对象 : 配备尾气净化装置的车辆, 紧急车辆, 残疾人, 国家有功者车辆等 유예대상 延期对象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不能安装减排装置车辆中的贫困群体(基础生活保障金领取者,次上位阶层)的小工商业者车辆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는 운행 제한에서 제외되지 않음 只需申请低公害措施不排除在运行限制之外		
저공해조치 방법 低公害措施方法s	조기폐차 提前报废	4,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4、5级柴油车提前报废时提供补助金	※4등급은 경유차 한정, 5등급은 전 차종 가능 ※4级只限用柴油车,5级限用所有车型
	저감장치부착 配备尾气净化装置	- 5등급 경유 차량 저감장치 부착 지원 5级柴油车辆尾气净化装置安装支援 - 부착 비용 약 90% 지원, 자부담금 약 10%(약 40만 원) 提供约90%的安装费用,自负金约10%(约40万元)	

과태료 기준 罚金规则

구 분 区分	내 용 内容	과태료 罚金
운행 제한 위반 违反限行规定	최초 적발지에서 1일 1회 在最初发生地点 一天一次	10만 원 10万元

※ **관련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1조
相关法令:关于减少微尘及管理特别法制第18条,第21条

주체적인 성인으로 성장해요!

수원글청, 리더십 아카데미 1기 교육 진행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4~6월 3개월간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12월까지 리더들과 자치활동을 진행한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총 8회기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6년 이주배경청소년의 리더십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성장, 그리고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생활 경험과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센터 이용 공간을 주제로 공통 관심사를 높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각 조 별로 찾으면서 문제 발견·분석·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 과정을 발표 자료로 만들어 발표하는 연습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교육 후 "협업하는 활동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은 6월~12월 센터 내에 국한되지 않고 센터 인근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자치활동을 진행한다.

첫 자치활동은 지난 6월 23일 청소년들이 발견한 문제를 알리는데 필요한 '방법'의 준비 과정으로 'SNS 콘텐츠 제작 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제작 활동을 통해 미디어 활용 능력을 끌어올렸다.

7월 활동은 센터 인근 화서동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해당하는 해결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들로 마련된다. 청소년들은 생활 속 불편함 또는 본국의 문화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개선사항을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리더십교육을 이수한 리더들은 하반기에는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새빛 글로벌 프렌즈'활동 단원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 자치활동은 연 2회 운영할 예정으로, 8월 18일~10월 6일 2기 교육(주 1회, 총 8회기)과 자치활동을 진행한다. 이지은 기자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수원글청, 컴퓨터교육 '디지털 부팅UP'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 비전클래스 컴퓨터기초교육 '디지털 부팅UP'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비전클래스 신규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접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하도록 돕는다. 교육은 반별 4회씩 총 5차에 걸쳐 운영되며, 참여자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차 교육은 공교육 진학을 준비하는 14~18세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컴퓨터의 기본 구성과 마우스·키보드 사용법, 폴더 및 파일 관리, 한글 문서 작성 등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부팅UP'은 오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남은 교육은 20세 이상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기르고 안정적인 진로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수원글청, 통합동아리활동 '글로벌스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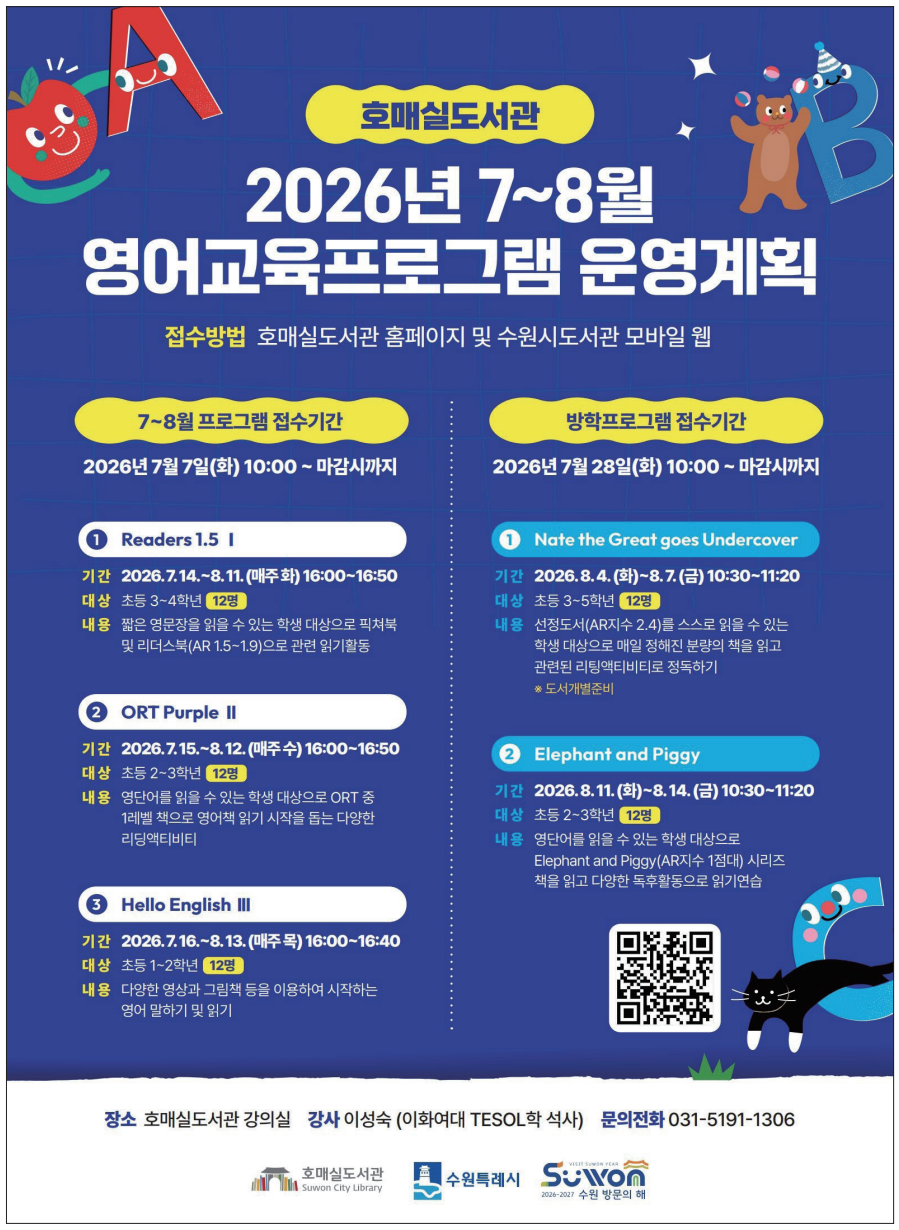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6월 22일부터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진동아리 '글로벌스냅'을 센터 5층에서 개강·운영 중이다.

'글로벌스냅'은 14세~24세 국내외 출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17시부터 19시까지 약 7개월간 센터 5층 행복로와 센터 외부 장소에서 진행된다.

동아리 활동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사진 촬영 기초교육과 인물·풍경·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주제의 사진 촬영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바른 사진 활용 문화 조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및 저작권·초상권 등 관련 윤리교육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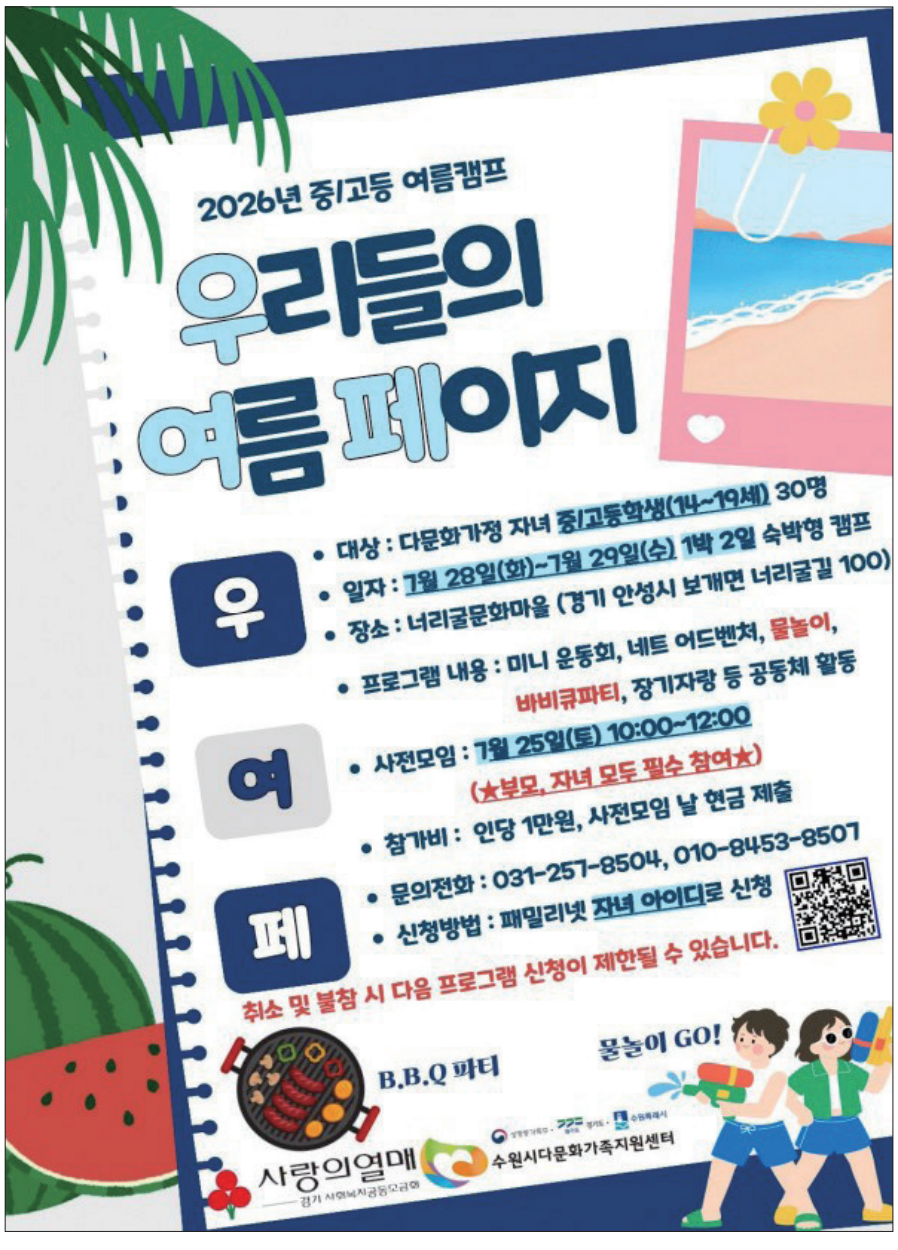
센터 관계자는 "글로벌스냅은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소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스냅' 활동 이용자 모집은 상시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31-247-132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호매실도서관
2026년 7~8월
영어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접수방법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 및 수원시도서관 모바일 웹
7~8월 프로그램 접수기간
2026년 7월 7일(화) 10:00 ~ 마감시까지
① Readers 1.5 I
기간 2026.7.14.~8.11.(매주 화) 16:00~16:50
대상 초등 3~4학년 12명
내용 짧은 영문장을 읽을 수 있는 학생 대상으로 픽쳐북 및 리더스북(AR 1.5~1.9)으로 관련 읽기활동
② ORT Purple II
기간 2026.7.15.~8.12.(매주 수) 16:00~16:50
대상 초등 2~3학년 12명
내용 영단어를 읽을 수 있는 학생 대상으로 ORT 중 1레벨 책으로 영어책 읽기 시작을 돕는 다양한 리딩액티비티
③ Hello English III
기간 2026.7.16.~8.13.(매주 목) 16:00~16:40
대상 초등 1~2학년 12명
내용 다양한 영상과 그림책 등을 이용하여 시작하는 영어 말하기 및 읽기
방학프로그램 접수기간
2026년 7월 28일(화) 10:00 ~ 마감시까지
① Nate the Great goes Undercover
기간 2026.8.4.(화)~8.7.(금) 10:30~11:20
대상 초등 3~5학년 12명
내용 선정도서(AR지수 2.4)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학생 대상으로 매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관련된 리팅액티비티로 정독하기
※ 도서개별준비
② Elephant and Piggy
기간 2026.8.11.(화)~8.14.(금) 10:30~11:20
대상 초등 2~3학년 12명
내용 영단어를 읽을 수 있는 학생 대상으로 Elephant and Piggy(AR지수 1점대) 시리즈 책을 읽고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읽기연습
장소 호매실도서관 강의실 강사 이성숙 (이화여대 TESOL학 석사) 문의전화 031-5191-1306
호매실도서관 Suwon City Library
수원특례시
Suwon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2026 상반기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외국인 → 더 나은 체류조건 + 가족 동반
기 업 → 숙련된 인재 고용 유지
'비자 사다리'로 가족과 함께 경기도 정착
영주권(F-5)
거주(F-2)
숙련기능(E-7-4)
단순노무(E-9)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26.12.31.)
- 한국어 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보완 조건
-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 가능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 인구감소(관심)지역(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에서 근무할 경우 완화된 요건
(체류기간 2년, 경기도 가점 50점)으로 E-7-4 점수 충족 시 비자 전환 가능
외국인 요건
• 체류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지역특화: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 기업의 추천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자
- 인구감소지역은 근로기간 제한 없으며, 구직 중일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 추천으로 갈음
• 고용 계약 | 향후 2년이상 + 연봉 2,600만원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 이상으로 고용계약
• 점수제 충족 |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한국어 요건 유예 ~'26.12.31.)
기업 요건
• 기본요건 | 외국인(E-9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허용인원 | 국민 고용인원 30% 이내
- 인구감소(관심)지역, 뿌리산업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 (국민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제외
신청 기간
줘러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 방법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또는 경기도(www.gg.go.kr) 공고문 참고
문의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1345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 031-8030-4673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1661-0222
시·군 외국인정책 관련 부서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내용으로, 신청 시 반드시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 관련 법무부 하이코리아 및 경기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026년 초등 여름캠프
우리들의 여름 페이지
우
• 대상 : 센터회원 11세~13세(4~6학년) 50명
• 일자 : 8월 4일(화)~8월 6일(목) 2박 3일 숙박형 캠프
• 장소 :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안성시 보개면 너리굴길 100)
여
• 프로그램: 물놀이, 캠프파이어, 명랑운동회 등
• O·T 교육: 8월 1일(토) 10:00~12:00 (★부모, 자녀 필참★)
• 참가비 : 인당 1만원, O·T 교육일 현금 제출
폐
• 문의전화 : 031-257-8504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패밀리넷 자녀 ID 신청
접수!신청!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6년 중/고등 여름캠프
우리들의 여름 페이지
우
• 대상 : 다문화가정 자녀 중/고등학생(14~19세) 30명
• 일자 : 7월 28일(화)~7월 29일(수) 1박 2일 숙박형 캠프
• 장소 :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안성시 보개면 너리굴길 100)
• 프로그램 내용 : 미니 운동회, 네트 어드벤처, 물놀이, 바비큐파티, 장기자랑 등 공동체 활동
여
• 사전모임 : 7월 25일(토) 10:00~12:00 (★부모, 자녀 모두 필수 참여★)
• 참가비 : 인당 1만원, 사전모임 날 현금 제출
폐
• 문의전화 : 031-257-8504, 010-8453-8507
• 신청방법 : 패밀리넷 자녀 아이디로 신청
취소 및 불참 시 다음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B.B.Q 파티
물놀이 GO!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과 선주민 함께 노력해요

수원외복-팔달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와 팔달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최정호)은 지난 6월 18일 이주민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여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주민 및 선주민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지역사회 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상호 홍보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정보 공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 상호 활용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지역 내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교육·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팔달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 주도의 마을 활성화 사업과 공동체 기반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해규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성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호 이사장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프랑스 뚜르에서 수원 알렸다

수원 청년, 13일간 청년대사 국제교류 진행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국제자매도시인 프랑스 뚜르시에서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11박 13일간 수원시 청년대사 2명이 참여한 '2026 수원-뚜르 청년대사 뚜르시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대사들은 뚜르시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국제학생, 뚜르시 청년대사 등과 교류했다. 또 뚜르시청 직원과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원시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수원시 홍보 ▲기초 한국어 배우기 ▲한복 체험 ▲전통놀이 ▲케이(K)-팝 체험 등을 운영하며 수원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알렸다. 이번 방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수원과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 생활 문화를 경험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10~11월 뚜르시 청년대사 2명을 초청해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청년들이 현지에서 수원과 한국 문화를 알리며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국제 교류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최초 '외국인 다국어 체납 안내문'

수원특례시, 7개 언어 납부촉구...징수율 올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전국 최초로 다국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촉구서를 제작·발송하는 등 외국인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 관리 체계를 운영해 상반기에 1억 186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로 세외수입 체납 납부 촉구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외국 국적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을 대상으로 완전 출국자와 사망자 등 934명을 제외하고, 1874건의 최신 주소 정보를 반영해 우편 발송의 정확도를 높였다.

2월부터 완전 출국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 체납자 3383명에게 납부 촉구서를 발송한 결과, 대상자의 25.63%(867명)가 체납액을 납부했고, 총체납액 5억 1370만 원 가운데 1억 1860만 원(23.09%)을 징수했다.

외국인이 이해하기 쉬운 맞춤형 안내로 행정 접근성을 높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는 8월 중 2차 다국어 납부 촉구서를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조사와 정리 보류를 병행하는 등 외국인 체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가 언어의 제약 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를 높이고,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탑동시민농장 꽃구경 오세요!

황금빛 황화코스모스와 순백의 백련 만개해



'도심 속 휴식처'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탑동시민농장에 황화코스모스와 백련이 만개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탑동시민농장은 총 3만 7635㎡ 규모의 경관 단지에 여름을 대표하는 꽃들을 가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중앙잔디광장 옆 1320㎡ 규모의 백련단지에는 순백의 백련이 활짝 피어 청초한 여름 풍경을 연출한다. 또 산책길을 따라 황금빛 황화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피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탑동시민농장은 탁 트인 잔디밭과 계절마다 변화하는 경관 작물을 갖춘 도심 속 자연 친화 공간이다. 연간 45만 명이 찾고 있으며,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보여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순백의 백련과 황금빛 황화코스모스가 어우러진 탑동시민농장에서 여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며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해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감상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함께 살아가는 오늘, 모두 다 함께 살아갈 미래를 이야기하다"

아시아문화연구원, '한국의 이민사회' 출판기념회…각계에서 100여명 참석 성황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대표이사 정두훈, UN ECOSOC 특별협의지위 NGO)은 지난 7월 11일 수원팔달문화센터 예당마루홀에서 '한국의 이민사회'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이민사회'는 김용국, 김소희, 메가나트 포우델, 카인몬쪼, 팜티미 등 5명의 공동저자가 집필한 도서로, 한국 이민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정책·현장·학문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한 연구서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축사, 출판사 인사말, 아시아문화연구원 소개 영상 상영, 책 소개, 공동저자들의 집필 이야기,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설성경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염태영 국회의원, 양향자 최고위원, 박영식 전 주네팔한국대사, 조용호 오산시장 등 내외빈과 각계 인사, 이주민 공동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김용국 원장님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충분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 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번 책을 출간하신 것은 한국이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대표저자인 김용국 박사는 책 소개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이민사회를 준비하는 단계를 넘어 이미 이민사회에 들어섰다"며 "이 책이 이주민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갈 이웃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집필 이야기 순서에서 공동저자들은 집필 과정에서의 경험과 현장의 이야기를 참석자들과 공유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뿐 아니라 시민의 인식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팜티미 씨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래에서부터 이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문화연구원은 이번 출판을 계기로 한국 이민사회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은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사회통합과 문화공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세통람에서 출간된 이번 도서는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영어책과 함께하는 여름…수원 호매실도서관, 7~8월 영어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수원시 호매실도서관이 '2026년 7~8월 영어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

영어 수준에 맞춰 읽기와 말하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성숙 강사(이화여대 테솔(TESOL)학 석사)가 진행한다.

정규 프로그램은 ▲'리더스(Readers) 1.5 I'(초등 3~4학년) 픽처북·리더스북을 활용한 영어 읽기 활동 ▲'오알티 퍼플(ORT Purple) II'(초등 2~3학년) 영어책 읽기 입문을 위한 리딩 활동 ▲'헬로 잉글리쉬(Hello English)III'(초등 1~2학년) 영상과 그림책으로 영어 말하기와 읽기를 익히는 과정으로 운영한다. 방학 프로그램은 ▲'네이트 더 그레이트 고스 언더커버(Nate the Great goes Undercover)'(초등 3~5학년) 선정 도서를 읽고 리딩 활동을 하는 정독 수업 ▲'엘리펀트 앤드 피기(Elephant and Piggy)'(초등 2~3학년) 시리즈 도서와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영어 읽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모든 강좌는 각 12명을 모집한다. 정규 프로그램은 7월 7일 오전 10시부터, 방학 프로그램은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 '통합예약·신청-독서문화프로그램'과 수원시도서관 모바일웹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운영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호매실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영어책을 즐겁게 읽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책과 공연으로 만나는 특별한 독서체험

용인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책보고 공연보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6월 27일 공동육아나눔터에서 5~9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책보고 공연보고'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패널시어터 그림인형극 「헨젤과 그레텔」을 통해 동화를 공연으로 만나보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아동들이 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여 아동들은 공연 속 등장인물과 함께 이야기에 몰입하며 여러 장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공연을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책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보호자들은 "인형극 관람을 통해 아이가 자연스럽게 독서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을 체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 "아이가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말 재미있어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지영 센터장은 "'책보고 공연보고'를 통해 아동들이 책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학생 '글로벌 프렌즈 캠프' 운영

왕산초, 지역 대학 연계 외국인 학생 밀착 맞춤형 케어



왕산초등학교(교장 임화섭)가 학내 외국인 가정 아동의 급증에 따른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대학들과 손을 맞잡았다고 1일 밝혔다.

왕산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및 칼빈대학교(이하 칼빈대)와 다문화·외국인 자녀 대상 지역 협력 시범사업인 '글로벌 프렌즈(Friends) 캠프' 운영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캠프 가동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왕산초가 교내 지정 교실 등 교육 공간을 무상 지원하고, 한국외대의 언어·문화 교육 인프라와 칼빈대의 청소년 지도 및 전문 상담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공교육 차원의 '밀착형 다문화 돌봄·교육 안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왕산초등학교 임화섭 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 연계 온동네돌봄사업 등으로 확장하여 다문화 학생들의 상호 교류와 한국 생활의 안정적 적응을 위한 초석이 되면 좋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자녀 발달 이해와 소통 '가족소통교육'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족소통교육-발자국 소통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생애주기별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해당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방법과 양육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총 3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전보영(한마루관계연구소 소장) 강사가 맡아 참여 부모들이 실제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천 방법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 과정별 부모교육 2회기를 모두 수료한 참여자에게는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해, 교육에서 배운 의사소통 방법을 가족 활동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부모교육은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이번 가족소통교육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용인 지역 12개 공원 물놀이장 8월 23일까지 개장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부터 지역 12개 공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물놀이장에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설치됐다.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공원은 처인구 ▲한숲햇빛근린공원 ▲늘품어린이공원 ▲중앙물빛어린이공원 ▲물잔디어린이공원 기흥구 ▲물내음어린이공원 ▲푸른내어린이공원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늘찬근린공원 수지구 ▲별다올어린이공원 ▲만현근린공원 ▲신봉힐링근린공원 ▲죽전어린이공원 등 12곳이다.

물놀이장은 8월 23일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물놀이장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단, 수지구 만현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운영한다.

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놀이장은 매시간 45분 가동하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지은 기자

SHARE Zone

KIS Q&A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무엇이 달라지나요?



Q 동포 체류자격 통합이란 무엇인가요?
A 그동안 동포는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등 서로 다른 체류자격을 사용했어요. 이제는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됩니다.

Q 기존 H-2(방문취업)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A '26. 2. 12.부터는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체류기간 상한까지 정상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F-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방문취업(H-2) 자격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27. 12. 31.까지 자격변경 수수료(10만원)가 면제됩니다.

Q F-4 비자를 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A 취업 활동 등을 하며 더 안정적으로 오래 한국에 머물 수 있어요.

Q 취업할 수 있는 일도 달라지나요?
A 일부 직종에서 취업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인력 부족이 있는 일부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ex. 건설 현장 단순 작업, 물류·포장 작업)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 조건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더 유리해요.

Q 영주권(F-5) 신청에도 도움이 되나요?
A 네,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 능력이 좋거나 사회 참여 활동(ex.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영주권 신청 시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자세한 내용 확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동포 체류자격 통합시행 안내)

추가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상담과 통역 지원

상세 안내와 고충 상담
동포체류지원센터
전국 23개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Consolidation of Overseas Compatriot Residence Status (F-4): What Will Change?



Q What is the consolidation of overseas compatriot residence status?
A Until now, overseas compatriots have used different residence statuses, such as 'Visitor for Employment (H-2)' and 'Overseas Compatriot (F-4)'. From now on,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they will be consolidated under the 'Overseas Compatriot (F-4)' status.

Q What will happen to existing H-2 (Visitor Employment) visas?
A From 12 February 2026, new H-2 visas will no longer be issued. Those who already hold an H-2 visa may remain in the country normally until the end of their permitted stay, and may apply to switch to F-4 status even if their current stay period has not yet expired.

Q What are the fees for changing to Overseas Korean (F-4) status?
A When applying to change from Visitor-Worker (H-2) status to Overseas Korean (F-4) status, the status change fee (100,000 won) is waived until 31 December 2027.

Q What are the benefits of obtaining an F-4 visa?
A You can stay in Korea for a longer period with greater stability whilst engaging in employment activities.

Q Will the types of jobs I can take up change?
A Employment opportunities have expanded in certain sectors. Whilst there were previously restrictions, you can now work in certain fields experiencing labour shortages (e.g. unskilled labour on construction sites, logistics and packaging work).

Q How long can I stay?
A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you can stay for up to three years. It is particularly advantageous if you can demonstrat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have participated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Q Does this help with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F-5)?
A Yes, it does. If you have good Korean language skills or consistently engage in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e.g. voluntary work), the conditions for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y may be relaxed.

Any further questions?

Announcements on the HiKorea website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re:
1345
(no area code required)

23 Overseas Compatriot Residence Support Centres nationwide

2026 SPRING vol.75

2026 가족소통교육 〈발자국 소통학교〉

우리아이 성장 솔루션

'아이를 바꾸기보다, 아이를 이해하는 시간'

언제? 2026년 7월 15일 / 22일 수 10:00~12:00
어디서? 용인시가족센터 다목적강의실2
대상은? 용인시 유아기(4세~7세) 자녀를 둔 부모 20명

무엇을 하나요?
- 유아기 발달 특성 이해
- 감정 코칭 및 긍정훈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가지 모두 신청 필수!

1. 홈페이지
2. 구글폼

교육 참여 혜택있나요?
- 부모교육 2회기 모두 참여 시 가족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 제공







☎ 가족서비스팀 박연선 070-7477-9200

2026 가족소통교육 <발자국소통학교>

청소년기 부모입학을 환영합니다!

소집일 및 신청방법

- 일시 | 2026년 7월 15일 / 22일 (수) 19:00~21:00
- 장소 | 용인시가족센터 3층 다목적강의실2
- 대상 | 용인시 청소년기(12세~14세) 자녀를 둔 부모 20명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및 구글폼 2가지 모두 신청

홈페이지 구글폼

진행내용 및 강사소개

- 진행내용 | 청소년기 발달 특성 이해 성발달과 이성교제
- 강사소개 |



<전보영 강사>
- 성균관대 가족학전공 박사
- 한마루관계연구소 소장
- 한국가족관계학회 교육·연수 이사
- 2025년 참여자 만족도 5.0점

- 문의방법 | ☎ 가족서비스팀 박연선 070-7477-9200

부모교육 2회기 모두 참여 시 가족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 제공!


터프팅키링 만들기


가족 보드게임

※ 예시 이미지로, 실제 제작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인특례시 용인시가족센터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포용!

용인외복-서울아산병원, 3년째 이주민 무료 건강검진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7월 5일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팀과 함께 용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11개국 출신 외국인주민 약 60명이 참여한 이번 검진은 언어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료봉사는 단순한 건강검진을 넘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지속적인 의료 연계를 목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혈액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cal), 혈당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 촬영 등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담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됐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투약과 추가 진료 안내도 함께 이루어져 실질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특히 이날은 11명의 상담사와 자원봉사자가 의료진과 함께 참여해 다양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지원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료진 역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협력은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팀은 1995년부터 의료장비를 갖춘 이동진료버스를 활용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용국 센터장은 "외국인주민은 언어와 문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서울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뿐 아니라 건강상담과 의료 연계까지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와 서울아산병원은 올해로 3년째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서농도서관, 여름방학 맞아 생태·독서 프로그램 운영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서농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생태·환경 특성화 프로그램과 독서교실, 방학특강 등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농도서관의 대표 특성화 프로그램인 '맹꽁이 숲놀이 학교: 여름학기'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도서관 3층 동아리실과 인근 공원 숲에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 체험과 숲놀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13일에는 성인을 위한 '생태미술교실 3기: 이오난사 반려식물&향 오브제 공예'를 운영했다. 친환경 소재인 제스모나이트와 공기정화식물인 이오난사를 활용해 생활 소품을 만들며 자연 친화적인 공예와 힐링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27일부터 8월 7일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독서교실과 방학특강을 진행한다. 그림책과 연계한 독서미술, 독서 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독서교실과 방학특강 참가 신청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서농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모집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또는 전화(031-6193-1534)로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은 '여름방학 감사엽서 이벤트'도 마련했다. 도서관 1층 필사코너에 비치된 엽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작성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하반기 도서관 '재능기부 프로그램'...자원활동부터 하반기 강연·체험까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의 재능 나눔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도서관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서관 '재능기부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문화·언어·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활용해 도서관에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자료실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이다.

용인시는 매년 파손도서 수리봉사와 서가지킴이 등 연중 운영 프로그램과 상·하반기 재능나눔 강연·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의 재능 나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연중 프로그램으로는 여러 차례 대출·반납되는 과정에서 찢기거나 낡은 책을 수리하는 '파손도서 수리봉사'와 반납 도서를 정리하고 이용자를 안내하는 '서가지킴이'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서관별 특성을 살린 정기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중앙도서관은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예절 교육과 동화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꿈꾸는 잎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흥도서관은 시민들이 직접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시민의 책장' 북큐레이션을 통해 독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수지도서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동화쏙! 영어스토리텔링'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민들의 재능을 활용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도서관별 특성과 운영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수지도서관은 기업경영 강연과 영어 스토리텔링, 다이어리 꾸미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죽전도서관은 식물의 형태와 질감을 표현하는 보태니컬아트 드로잉 클래스를 운영한다.

성복도서관은 영어 스토리텔링과 세계시민 어린이 진로캠프, AI 독서노트 만들기,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현도서관은 부모교육과 AI 콘텐츠 제작, 다육식물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흥도서관은 그림책 하브루타 강연과 환경 체험 프로그램을, 보정도서관은 나만의 그림책 제작 과정을, 서농도서관과 남사도서관, 동백도서관, 모현도서관은 그림책 읽기와 영어수업, 독후활동 등 어린이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서관별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용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능기부 참여에 따라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문의하면 운영 분야와 참여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활동 실적에 따라 1365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소정의 실비보상금도 지급된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여 방법은 용인시 도서관 누리집(https://lib.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아이돌봄사 심리 회복과 건강한 돌봄 지원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 정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난 7월 15일 센터 대강의실에서 관내 아이돌봄사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음을 돌보는 향기 요법(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구리시가 지원하고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가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아동을 돌보며 다양한 감정 변화를 겪는 아이돌봄사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감정별 아로마 오일 향기를 체험하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으로 시작됐다. 참여자들은 향기와 감정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프로그램에서는 개인의 감정 상태에 맞는 향을 직접 배합해 작은 화환을 만드는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향의 의미와 작품 제작 과정을 함께 공유하며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국가 자격제도 시행으로 아이돌봄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 또한 시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애쓰는 아이돌봄사 여러분께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 더욱 건강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성은 센터장은 "아이돌봄사의 정서적 건강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봄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이돌봄사는 "완성한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를 각 가정에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지은 기자

구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해요

구리시(시장 신동화)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6년 3차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권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년간 지원하며,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차 주택 주소지가 모두 구리시에 있고 ▲혼인신고 일부터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금융권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비롯해 주택도시기금의 저금리 대출인 버팀목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그 밖의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다. 구리시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구리시청 건축과(☎031-550-23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 인권침해'1345 콜센터 1번'...한 달 만에 신고 6배 급증

법무부, 20개 다국어로 피해 신고접수,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접수가 종전보다 6배 이상 급증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를 신고하기 위해 상담 분야에 따라 여러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는 1345로 전화한 후 '1번'만 누르면 전담 다국어 상담사에게 즉시 연결되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번호(1번) 구축 전에는 월 평균 22건 접수되던 신고 건수가 구축 이후 1개월간 142건으로 약 6.4배 급증했습니다.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1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어 부족 등 언어장벽이나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E-9) 근로자, 계절근로자(E-8), 외국인 연예인(E-6), 외국인 선원(E-10), 결혼이민자 등 취약한 환경에 놓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개 언어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지 않아 전화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SNS 신고 채널도 함께 운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소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활용하여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장 내 소음 등으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방법은 페이스북 페이지 'Migrant Rights'를 검색 또는 QR코드 스캔 후,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이민자권익보호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전국 총 112명), 지방노동청, 인신매매 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상담 현장을 살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중국어 하단, 태국어 29면, 영어 29면〉

파파야스토리

外国人人权侵害举报'1345呼叫中心1号键'……一个月内举报量激增6倍

法务部提供20种多国语言的受害举报、咨询、相关机关对接等一站式支援

你知道国内滞留的外国劳动者遇到拖欠工资、性暴力等人权侵害时,有提供20种语言立即求助的专用窗口吗?

法务部 部长郑成浩)表示,在"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新设侵犯人权专用举报号码(1号键)后,一个月内举报受理比之前激增了6倍以上,取得了实质性的人权救济效果。

为了让滞留在国内的外国劳动者更容易、更迅速地举报拖欠工资、暴行、性骚扰扰性暴力、护照扣押、强制劳动等各种人权侵害,5月27日起,法务部在"1345外国人综合咨询中心"(以下简称"1345呼叫中心")新设并运营了"外国人人权侵害专用举报号码(1号键)"。

以往,外籍劳动者举报侵权行为,需要根据咨询领域向多家机构咨询,很多不便,但现在只需拨打1345,按"1号键"即可与多语种专职咨询师接通,进行举报或咨询。

专用号码(1号键)开设前每月平均收到22件举报,开设后的1个月里猛增到142件,约增加了6.4倍。

设立人权侵害专用举报号码(1号键)的目的,是为了帮助因韩语能力不足、语言障碍或不了解举报程序而无法及时求助的外国劳动者,使其在人权受到侵害时能够快速获得救济。

特别是针对雇佣许可制(E-9)劳动者、季节性劳动者(E-8)、外国人演艺人员(E-6)、外国人船员(E-10)、婚姻移民等处于较为弱势环境的外国人,咨询窗口提供20种语言服务,使其能够更加方便地举报人权侵害等受害情况。

此外,考虑到部分外国劳动者尚未办理韩国手机号码、无法通过电话举报,法务部还同步开通了SNS举报渠道。

外国劳动者可通过平时常用的Facebook页面,发送文字、照片、视频等举报受害情况,提高举报便利性;即使因工作场所噪音等原因通话困难的情况,也能够安全地寻求帮助。

举报方式为Facebook页面搜索"Migrant Rights"或扫描二维码后发送消息即可。

收到举报后,法务部将与全国19个出入境·外国人事务厅(办事处)的移民权益保护官、犯罪被害人一站式解决中心、为外国人服务的社区律师(全国共112名)、地方劳动厅以及人口贩运受害者权益保护机构等相关部门联动,切实推进权利救济工作。

另外,法务部外国人政策本部长车龙浩(音)7月3日访问了外国人综合咨询中心,检查了外国劳动者人权侵害申报体系运营现状,并视察了咨询现场。

韩国法务部表示,今后将继续努力营造外国劳动者能够安心生活的人权友好型居住环境,并提供迅速有效的权利救济。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다양한 문화로 잇는 공감의 시간 가져요!

광주시가족센터, 지역 기관과 학교에서 다문화체험주간 운영

광주시와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6월 18일부터 지역사회 문화 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한 '다문화체험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학교와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됐으며, 각 나라 출신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들이 직접 교육과 문화체험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생생한 세계 문화를 전하고 있다.

먼저 당일 광주시노인복지관 오포센터에서는 필리핀·중국·몽골 문화체험이 진행됐으며 6월 27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필리핀, 몽골, 볼리비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문화체험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전통의상 체험과 다문화 책갈피 꾸미기에 참여했으며, 강사들은 참여자의 이름을 자국 언어로 직접 적어주기도 했다. 또한 문화체험과 함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안내문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했다.

또한 6월 22일에는 벌원초등학교에서 6월 23일에는 태전초등학교, 7월 1일에는 광주광명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과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광명초등학교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이 문화체험과 다문화 책갈피 꾸미기 활동을 진행하며 문화다양성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었다.

이수희 센터장은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031-798-7141

이지은 기자

"1인 가구의 건강한 취미생활, 응원해요"

광주시가족센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미메이트'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20일과 27일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사업 '취미메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진 촬영 이론 교육과 출사 활동을 통해 1인 가구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고자 기획됐다. 6월 20일에는 사진 촬영 이론 교육을 진행했으며, 27일에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에서 출사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인생샷을 촬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1인 가구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공통의 관심사와 목표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했다. 특히 모든 일정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프로그램에서의 만남을 약속하는 등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주말에 진행되어 참여 부담이 적었고, 남한산성 출사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어 뜻깊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참여자들이 함께 배우고 활동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6월 취미메이트를 시작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수요일에 운영하는 '저녁메이트'와 8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하는 '힐링메이트'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자연분만 신생아 관리 특강



광주시보건소는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기념해 지난 8일 지역 내 자연분만을 앞둔 임산부 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연분만 및 신생아 관리 실습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올해 1월 광주시와 분당차병원(여성)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마련됐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에게 의료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출산 정보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분당차병원(여성)에서 20여 년간 산부인과 임상 현장을 경험한 조산사이자 국제 라마즈 교육자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자연분만의 전 과정과 분만 시 호흡법, 진통 단계별 대처 요령, 출산 직후 신생아 돌보기, 올바른 모유수유 방법 등 예비 부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습과 함께 진행됐다.

특히, 실제 분만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호흡법과 상황별 대응 요령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해 참가자들이 출산 과정을 미리 체험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임산부들은 의료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이 출산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임산부는 "분만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직접 배우니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며 "신생아 돌보기와 모유 수유 방법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 출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걸친 3개 분야 24종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GWANGJU CITY

1인가구자유주제제안사업

매월 수요일 가족센터에서 만나요

저녁메이트

향기로 채우는 행복한 저녁



일 시	8월 12일(수) 19:00~21:00(2H)
신청기간	7월 16일(목) 14시~7월 30일(목)
	✨ 7월 31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참여 확정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장 소	광주시가족센터(광주시복지행정타운 6층)
참여대상	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인 1인가구 10명
	✨ 1인가구임을 증빙해주셔야 합니다. • 광주시민: 주민등록등본 • 광주시 직장 재직, 학교 재학: 등본과 사원증, 학생증 등
내 용	룸 스프레이(100ml) 및 맞춤 향수(15ml) 제작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 1인가구 맞춤형 향수 만들기

[필수사항] 프로그램 참여 확정 후 취소 및 당일 불참 시 추후 센터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신청하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참여 확정 연락을 받지 않을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문의사항]: 070-4706-3622(가족성장팀)

광주시가족센터

가족상담 안내

모두가 봄 마음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



이런 분들께 필요해요

- ☑ 가족 및 부부 갈등,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일상의 스트레스로 힘든 경우
- ☑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용 안내

- 월요일 ~ 목요일 09:00~18:00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18:00~21:00

☑ 상담 이용료
- 1회기 10,000원
  개인상담 8회기
  부부 및 가족상담 10회기

상담 문의 031-798-7138

광주시가족센터

가정통신문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학부모님의 원활한 학교 소통을 돕기 위해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1. 다문화 가정 학부모
2. 한국어 이해가 어려운 보호자
3. 외국어로 안내가 필요한 모든 가정
4. 관내 어림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원내용
1. 학교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 제공
   * 주요 안내문 및 공지사항 번역
   * 필요 시 개별 안내문 번역 지원
2. 학교 상담 통역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과 교사 간, 중도입국자녀와 교사 간 상담 통역 지원 (중국어, 베트남어 가능)

이용절차
전화 신청 → 신청서 및 원본파일 전송 → 번역 후 회신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기타 언어는 별도 문의

비용
무료제공

문의
중국어 070-4706-3744
베트남어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멘토 · 멘티 운영

멘토 · 멘티 서비스 이용 안내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이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신규등록 지원
★ 멘토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 프로그램 이용 연계
★ 멘토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멘토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신청방법 ★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멘토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멘토·멘티 활동 이용 가능

문의처 070-4706-3733 결혼이민자 멘토·멘티 운영 담당자

광주시가족센터

'여름특강'으로 학습 자신감 향상 지원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위한 기초학습지원사업 운영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여름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름특강은 독서활동을 통해 글쓰기 이해와 표현력, 발표 능력 향상을 돕고, 1학기 동안 학습한 수학 내용을 복습하며 기초 개념을 정리해 아동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한다.

아동들은 주말 수업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보이기도 했으나, 친구들과 함께 독서활동을 진행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여름특강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즐겁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기초학습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 역량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의 기초학습지원사업은 국어·수학 등 기본 학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와 함께 부모자녀독서코칭, 역사체험, 국어확장학습(공연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송하성 기자





광주시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

광주시는 6월 30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3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가운데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 및 이동 지원을 담당하는 ㈜클린시티, 맞춤형 식사를 지원하는 ㈜현대그린푸드, 주거환경 개선을 맡는 ㈜공구잡는청년들이다.

각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받으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비용의 80%를 지원받는다. 송하성 기자

'시민주권 시대' 박관열 광주시장 취임…시민과 바로 통하는 '직통광주' 실현한다



광주시는 1일 광주시문화예술의전당 남한산성홀에서 내외빈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박관열 광주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대의 출범을 알리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하 서한 낭독을 시작으로 주요 공약 비전 영상 상영, 공직자와 가족 대표의 축하 인사, 판굿 공연 등이 진행됐다.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구호인 '바로 통하는 나의 삶, 직통광주'를 선포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행정이 시민보다 앞서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으로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보고만 받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과 바로 연결되는 직통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언급하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농사일과 제과점, 양복점,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생활했다"며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인 만큼 신청해야 받는 복지가 아닌 복지 내비게이션을 통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행정과 기본사회도시 ▲배움과 돌봄이 일상이 되는 시민행복도시 ▲인공지능·에너지·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경제도시 ▲스마트 기술 기반 혁신교통도시 ▲역세권 중심 3만 호 인공지능 스마트 자족도시 조성 등 민선 9기 5대 시정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지역 현안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는 "국가 전략산업을 위한 협력은 필요하지만 광주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인공지능 상생특별지원지역 지정과 첨단산업·연구개발 기능 유치, 광역교통망과 교육 기반시설 확충 등 광주의 미래를 위한 국가사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시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광주시청 031-760-2000 광주시가족센터 031-798-7141 세상의빛이주민센터 031-767-8118 광주고용센터 031-799-2760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031-797-7188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세계 문화 소개하며 문화다양성 전파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 결실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최근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결혼이민자들이 양평군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인 강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됐으며,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해 전원이 과정을 수료했다.

참가자들은 강의 기획과 수업 운영, 스피치 기법, 문화다양성 교육 등 교육 현장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했다. 수료 후에는 양평군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중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방문해 자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문화적 자산과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교육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자연'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

양평군 도서관,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평도서관에서 '2026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을 개최한다.

2026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양평군은 지역 특성과 연계한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당일 양평도서관 1·2층 로비 공간에서는 자율 독서 공간,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2층 다목적실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마술공연이 진행된다.

먼저, 자율 독서 공간에서는 '자연을 잇다, 마음을 잇다'를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과 추천 도서 전시를 통해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고 머물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추천 도서 중 군민이 공감할 만한 핵심 문장을 엽서에 적거나 슈링클스 종이에 옮겨 적어 키링과 책갈피를 만들어 보는 도서 필사 체험 부스, 양평군을 대표하는 음료인 오디에이드를 맛보며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지역 TEA&BOOK 페어링 부스, 그리고 관내 지역 서점 플리마켓 부스가 마련된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 2층 다목적실에서는 도서관 힐링 아트쇼 '드로잉&매직' 공연이 펼쳐진다. 마술과 그림을 결합한 이색적인 무대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 모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은 6세 이상 어린이를 포함한 양평군민 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26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온라인 사전접수를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접하고, 도서관에서 휴식과 치유, 문화적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70-2731

송하성 기자

양평군, 캄보디아 국립대학교 농업기술 ODA협력 업무협약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교육ODA개발협력센터(이하 덕성여대 ODA센터), 캄보디아 바탐방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Battambang, 이하 NUBB)와 농업 분야 교육 및 기술역량 강화, 농산물 유통·가공 지원시설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기술 교육과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농업기술 분야 기술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유통·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기술교육 ▲농업기술 및 농업지도 우수사례 공유 ▲교육·연수·세미나·워크숍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수·전문가·연구자 교류 ▲캄보디아 현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덕성여대 ODA센터는 ODA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사업 기획과 조정,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며, 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과 농산물 유통·가공, 지역농업 지원 사례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기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탐방국립대학교는 현지 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 연계, 성과 확산을 담당하며 사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한다.

세 기관은 앞으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기술 교육과 실습, 현장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캄보디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평군이 보유한 선진 농업기술과 농산물 유통·가공 분야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덕성여대 ODA센터와 바탐방국립대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4일 아쿠아필드 하남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참여 아동과 가족 등 35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실 밖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 및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사회적 경험을 넓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실내외 물놀이 공간과 모래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가족 단위 참여를 통해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각자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센터 측은 물놀이 활동 전 교육을 통해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동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규칙을 지키며 참여하는 태도를 길렀다.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기초학습 담당자는 "이번 체험학습은 아동들이 익숙한 학습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가족 및 또래와 즐겁게 어울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31-793-2993

이지은 기자

하남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확대해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등본상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남시는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동일하게 월 사용량 5톤(4,860원)을 감면했지만, 7월 고지분부터는 3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 10톤(9,730원), 4자녀 이상 가구는 월 사용량 15톤(14,59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3자녀 가구는 기존보다 두 배, 4자녀 이상 가구는 세 배 수준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확대된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분부터 확대된 감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문의 031-790-6446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중도입국자녀 한국음식 만들기 '한식대첩'...건강한 성장 지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며,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 이해 증진, 또래 관계 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센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며, 실전형·체험형 한국어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 도서관 탐방, 과일청 만들기,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에는 한국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프로그램 「한식대첩」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중도입국자녀들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한국의 대표 음식인 잡채와 인기 간식인 소떡소떡을 직접 만들고 함께 나누었다. 중도입국자녀들이 한국 식문화를 체험하고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는 훌륭한 기회가 됐다.

이번 활동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중도입국자녀 멘토링 사업과 한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맺었던 봉사자들이 다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익숙한 얼굴들과 다시 만나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도입국자녀들은 "잡채와 소떡소떡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 "직접 만든 음식이 맛있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사업은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중도입국자녀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31-793-2993 송하성 기자

봉사자와 함께 하반기 운영방향 모색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상반기 평가회의 개최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7월 8일 센터 설레임실에서 지역특화사업「모두가족봉사단」 상반기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의는 모두가족봉사단 상반기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봉사자들의 실제 활동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의 개선사항을 논의해 하반기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가족봉사단 봉사자와 담당자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 나눔, 어울림 등 분야별 상반기 운영 실적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봉사활동 계획을 안내했다. 특히 환경살리기,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벽화그리기, 어르신 인지·정서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이 직접 활동 소감과 개선 의견을 발표하며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봉사자들은 환경살리기 활동을 통해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과 어르신 인지·정서지원 활동에서는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신규 봉사활동 확대, 봉사자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리더 역량강화교육 등 모두가족봉사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도 공유했다.

특히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성인 봉사자뿐 아니라 아동 봉사자도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점과 개선 의견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세대별 다양한 시각에서 봉사활동을 돌아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가족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봉사자들은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며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이날 공유된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르면 모두가족봉사단은 상반기 목표(22회, 550명) 대비 회기 운영률 127%, 참여율 106%(총 28회, 581명)를 달성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등록 봉사자 중 다문화가족 참여 비율은 45%로 나타나 다양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사회 대표 가족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송하성 기자

하남시, 민관경 손잡고 여성 안심귀갓길 야간 모니터링

하남시와 경찰, 그리고 시민들이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든든한 등불로 나섰다.

하남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날 밤 하남시청역 6번 출구부터 덕풍시장 진입로 구간에서 민·관·경 합동 '여성안심귀갓길 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행정 주도의 일방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 여성아동과 공무원들을 비롯해 현장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그리고 치안을 책임지는 하남경찰서 관계자 등 총 14명이 한뜻으로 뭉쳤다.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시민들의 주요 퇴근길이자 등하굣길인 골목길 구석구석을 꼼꼼히 걸으며 범죄예방시설물의 상태를 정밀 점검했다.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로고젝터와 사각지대를 비추는 안심반사경의 작동 상태는 물론,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CCTV, 비상벨, 보안등의 설치 현황과 정상 작동 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실제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귀담아들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안 요소와 구체적인 개선안을 수렴해, 철저히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우리 이웃의 안전을 살피고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 참여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끈끈한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 무결점 하남시'를 가꾸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자녀도 공공형키즈카페 이용해요...하남 미사3동 '맘대로A+놀이터' 개소



6일 오전 하남시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2층 공공형키즈카페 '맘대로A+놀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와 활기찬 함성이 공간 전체로 번졌다.

하남시는 이날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를 주도적으로 선택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인 맘대로A+놀이터를 정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첫선을 보인 183.21㎡ 규모의 놀이터 내부 공간은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춰 AI존, 역할놀이공간, 종합미끄럼틀, 디지털 스크린존 등으로 알차게 채워졌다. 노란색과 갈색 톤으로 따뜻하게 꾸며진 실내는 정식 개장 첫날부터 새로운 놀잇감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종합놀이터대(정글짐)와 모션슬라이드가 마련된 신체 놀이 공간에서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폭발했다. 도톰한 안전 매트 위를 딛고 정글짐 구조물을 씩씩하게 기어오르던 아이는 이내 중심을 잡고 꼭대기까지 올라와 환하게 웃었다.

이어 모션슬라이드를 타고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지켜보던 부모들도 연신 손을 흔들며 호응했다. 푸른 빛으로 반짝이는 체험형 미디어 테이블 앞은 마치 작은 바다를 옮겨놓은 듯 눈길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이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이리저리 움직이자 화면 속 그래픽이 살아 움직이듯 생생하게 반응했다. 대형 스크린인 모션월 앞에 모여선 아이들은 화면에 나타난 별 모양 캐릭터를 잡으려는 듯 고사리손을 연신 뻗고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디지털 융합 놀이에 푹 빠져들었다.

이 시설은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하루 총 3개 회차(1회차 오전 10시~11시 30분, 2회차 오후 1시 30분~3시, 3회차 오후 3시 30분~5시)로 나뉘어 각 90분씩 진행된다.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회차당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된다. 이용 신청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전화(031-793-6579) 문의로 가능하다.

파파야스토리







광명시가족센터, 가족합창단 여름 가족캠프 운영...내외국인 가족 교류의 장 마련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7월 11일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위드 하모니 가족합창단'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여름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합창 활동 외에도 가족 단위 체험활동을 통해 내외국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참여 가족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여 가족들은 양평 외갓집체험마을에서 방울토마토 수확, 팥빙수 만들기, 뗏목 체험 등 다양한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체험 과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추억을 쌓았고, 활동과 식사를 함께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가 이어져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는 계기가 됐다.

한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며 "합창 연습으로 만났던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방울토마토를 직접 수확하고 뗏목을 타는 체험이 아이에게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다."며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활동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위드 하모니 가족합창단」을 운영하며 정기 합창 연습과 가족 체험활동, 공연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Этим летом ближайшее место, где можно спастись от жары, — библиотека рядом с домом! 경기도 공공도서관, 다채로운 행사

В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31 города и уезд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в период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и отпусков пройдут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программы, чтобы помочь жителям пережить летнюю жару.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смогут этим летом укрыться от зноя в библиотеке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им летом публичные библиотеки станут не просто местом для чтения, а настоящим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и культурными пространствами, где каждый житель сможет отдохнуть, набраться сил и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пользой.

В июле и августе, во время летних каникул, Библиотека Кёнгидо организует программу «Но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остоится ночной читательский лагерь. Кроме того, будет открыта зона отдыха «Медиа-оазис», посвящённая теме цифр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с LED-экраном и ASMR-звуковым сопровождением.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в прохладном помещении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сладиться культур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Во многих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региона пройдут джазовые лекции по гуманитарным наукам, музыкальные вечера с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чтением, выставки оригиналов книжных иллюстраций, занятия по чтению для детей, мастер-классы в мейкер-пространствах, семейные концерты и кукольные спектакли.

Библиотека Jisan Chorok в городе Пхёнтхэк 24 июля проведёт вечернюю эколог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Следуя за лунным светом — в лес». Она пройдёт в лесу рядом с библиотекой и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семейного участия.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наблюдать за природой летнего ночного леса и получить необычный опыт, сочетающий знакомство с экологией и чтением.

Библиотека Seosuwon в городе Сувон с 3 по 6 августа организует для учеников 1–2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рограмму «Лето, поигра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площадка по мотивам книжек-картинок», где дети вместе с автором иллюстрированных книг будут читать, мастерить поделки и участвовать в творческих активностях. Библиотека Bogae в городе Ансон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до полуночи 14 августа — в день Мальбок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жарких дней по традиционному корей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 в рамках акции «Но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Бамдоккэб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город Гури откроет в публичных библиотеках пункты бесплатного проката зонтов от солнца, чтобы помочь посетителям избежать теплового удара во время жары.

Важную роль в борьбе с летним зноем играют и небольшие районные библиотеки, расположенные рядом с жилыми квартала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алые библиотеки как убежища от жары и холод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едоставляет 340 таким библиотекам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оплату кондиционирования и отопления.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ни работают как открытые зоны отдыха, доступные всем желающим. Выделенные средства идут, в частности, на оплату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для кондиционеров, а жители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отдыхать в прохладных помещениях и проводить лето за чтением книг. 〈중략,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파파야스토리

Mùa hè này, điểm tránh nóng gần nhất chính là thư viện trong khu phố của bạn!

Các thư viện công cộng tại 31 thành phố và quận (si/gun) của tỉnh Gyeonggi sẽ tổ chức nhiều sự kiện và chương trình đa dạng nhân dịp kỳ nghỉ hè và mùa du lịch, giúp người dân có thêm không gian tránh nóng trong những ngày thời tiết oi bức. Cư dân nước ngoài cũng hãy cùng con em mình đến thư viện trong mùa hè này để tránh nóng, đồng thời tận hưởng nhiều hoạt động bổ ích và thú vị. Mùa hè này, các thư viện công cộng được kỳ vọng sẽ không chỉ là nơi đọc sách, mà còn trở thành “điểm tránh nóng văn hóa đa chức năng”, nơi mọi người dân có thể tận hưởng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và nạp thêm nguồn cảm hứng cho bản thân.

Trong kỳ nghỉ hè từ tháng 7 đến tháng 8, Thư viện Gyeonggi sẽ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Thư viện đêm”, bao gồm hoạt động trại đọc sách xuyên đêm dành cho người tham gia.

Bên cạnh đó, thư viện cũng sẽ mở “Không gian Nghệ thuật Truyền thông – Ốc đảo Kỹ thuật số” với chủ đề Digital Oasis, được trang bị tường LED và âm thanh ASMR, nhằm mang đến cho người dân một không gian trong nhà mát mẻ để vừa nghỉ ngơi, vừa trải nghiệm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Các thư viện công cộng trên địa bàn tỉnh sẽ tổ chức nhiều chương trình văn hóa đa dạng như biểu diễn nhạc jazz kết hợp nhân văn học, hòa nhạc kết hợp đọc sách, triển lãm tranh minh họa sách, lớp học đọc sách dành cho thiếu nhi, trải nghiệm Maker Space, hòa nhạc gia đình và biểu diễn múa rối.

Thư viện Jisan Chorok (지산초록도서관) ở thành phố Pyeongtaek sẽ tổ chức chương trình trải nghiệm sinh thái dành cho các gia đình mang tên “Theo ánh trăng vào rừng” vào tối ngày 24 tháng 7 tại khu rừng gần thư viện. Người tham gia sẽ có cơ hội quan sát hệ sinh thái của khu rừng trong đêm hè và tận hưởng một trải nghiệm văn hóa đọc độc đáo giữa thiên nhiên.

Thư viện Seosuwon (서수원도서관) thuộc thành phố Suwon sẽ tổ chức chương trình “Hè vui cùng sách tranh! Sân chơi nghệ thuật từ sách tranh” từ ngày 3 đến ngày 6 tháng 8 dành cho học sinh lớp 1 và lớp 2 tiểu học. Tại đây, các em sẽ cùng tác giả sách tranh đọc sách, sáng tạo các sản phẩm thủ công và tham gia nhiều hoạt động vận động thú vị.

Thư viện Bogae (보개도서관) ở thành phố Anseong sẽ mở cửa ban đêm với chương trình “Đêm đọc sách – Bamdok (讀)kkaebi” đến 0 giờ ngày 14 tháng 8 (ngày Malbok – một trong những ngày nóng nhất mùa hè theo lịch truyền thống Hàn Quốc). Trong khi đó, thành phố Guri sẽ bố trí điểm cho mượn ô che nắng tự giác tại các thư viện công cộng để phục vụ người dân đến thư viện, góp phần phòng ngừa các bệnh do nắng nóng gây ra. Các thư viện nhỏ nằm gần khu dân cư cũng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việc ứng phó với các đợt nắng nóng.

Thông qua Dự án vận hành thư viện nhỏ làm nơi tránh nóng mùa hè và tránh rét mùa đông, tỉnh Gyeonggi hỗ trợ chi phí điện...〈중략〉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온가족 보듬사업

2026년 광명시가족센터
면접교섭 서비스




전문상담사가 자녀와의 만남을 도와드려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증진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면접교섭 서비스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 면접교섭 이행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 면접교섭 계획 및 진행방법에 대한 중재 • 모니터링 서비스 등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	이혼 과정 중이거나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양육 부모**
신청 방법	전화 접수(02-6265-1366)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안내사항
•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센터양식) • 피신청인 동의서(센터양식) • 부-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판결문(있는경우)	• 양육·비양육 부모의 동의 모두 필요 • 가정당 8회기 상담진행 (세부일정은 신청 시 조율예정) • 문의: 02-6265-1366 (홍주미 사회복지사)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성평등가족부

온가족 보듬사업



온가족보듬

온가족보듬사업은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취약 · 긴급 위기 가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구분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습정서지원	미취학 아동 초중 재학생 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1:1 자기주도 학습지도 정서지도 등	보듬매니저 가정방문 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지원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심리정서 지도 긴급돌봄지원 전문상담 연계 등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가족상담	개인, 부부, 부부-자녀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중인 가족에게 건강한 관계 개선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원	상담전문인력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	비슷한 경험의 구성원과 정보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모임		

☎ 상담문의: 02-2686-0435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가족의 일상 회복, 여기서 시작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국토교통부 광명시 경기교통공사 HYUND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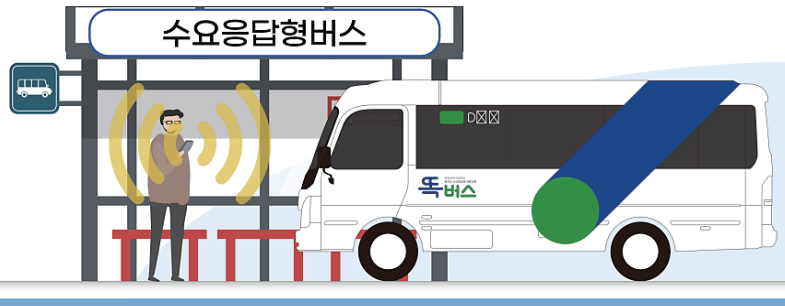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버스(DRT)
일직동 개통!

2026년 7월 6일부터 일직동 지역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버스(DRT)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버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운행기간	[정식운행] 2026년 7월 6일 [시범운행] 2026년 6월 22일 ~ 7월 5일 (*시범기간중은 무상운행)
운행지역	- 일직동 - 학온동 - 광명사거리역(7호선) - 일직동 - 소하2동 - 철산역(7호선) (*운행지역 내 기존 버스정류장 중 DRT 지정 정류장)
운행시간	06:00 ~ 23:30 (호출마감시각 23:00)
이용요금	1650원 경기도 버스 요금과 동일, 환승할인 (*현금이용 불가)
운 영	경기교통공사, 화영운수, 진성모빌리티
호출방식	'똑타'앱, 전화호출(1688-0181)

※ 호출취소 및 미탑승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 호출 5분 초과부터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300원이 부과됩니다.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준
    - 차량 호출 5분 이내 취소 시 (일 2회 제한, 3회부터 즉시 취소 수수료 부과)
    -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미탑승 시 운임요금 100%가 부과됩니다.



*해당 컨텐츠는 광명시와 경기교통공사의 자료를 활용 및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온가족 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광명시가족센터와 함께하는
2026년도 온가족보듬



가족상담

개인 / 부부 / 가족상담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 가족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을 때

대 상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광명시 거주자 우선)

내 용
개인, 부부, 가족 상담 지원

운영기간
[주간] 월~금 9:00~20:00
[주말] 토요일 9:00~18:00

비 용
총 10회기, 주 1회 진행
- 개인상담 | 회당 50분, 5천원 (총 5만원)
- 부부&가족상담 | 회당 90분, 1만원 (총 10만원)
*기초수급/차상위 증빙시 무료 진행
*심리검사 진행 시 별도 비용 발생 (필요시)

장 소
광명시청 제 1별관 내 광명시가족센터

신청 및 문의 ☎ 02-6265-1366 /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에서 더욱 빛나는 위기 취약 가족 돌봄!

광명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일환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한전아트센터에서 함께하는 무료 문화나눔 어린이 공포 뮤지컬 'MBC 심야괴담회×니니키즈: 학교에서 살아남기'를 관람했다.

이번 문화체험은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며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관람에 참여한 아동 유 모 군은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와서 정말 재미있었고, 무서우면서도 신나는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이번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8월에는 가족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며, 9월에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가족 힐링 템플스테이 활동을 진행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가족 유대감을 한층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명시가족센터는 올해부터 이혼 또는 별거 과정에서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건강한 만남을 지원하는 면접교섭 서비스 '만나,봄'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만남이 어렵거나 부모 간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상담, 부모교육, 중재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홍보지 QR코드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남은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들이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경험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취약 위기 가족의 가족기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 및 면접교섭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송하성 기자

"전화 한 통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해요"

광명시, 기존 홈페이지·앱에서 콜센터·키오스크까지 신고 채널 확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화 한 통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또한 키오스크를 도입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광명시는 8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일에너지와 '대형생활폐기물 원스톱 처리를 위한 배출신고 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천일에너지가 운영하는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플랫폼 '지구하다'를 무상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했던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콜센터와 키오스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폐기물 통합콜센터에 전화 한 통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올해 시범 설치 예정인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콜센터를 통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며, 키오스크는 9월 내 설치 장소를 선정한 뒤 1대를 시범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천일에너지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회, 가구당 최대 3개 품목까지 대형생활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내려드림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협약으로 기존 ㈜천일에너지가 수행하고 있는 커피박과 공사장폐기물 수거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수거까지 더해 폐기물 배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자원순환은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생활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광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자원재활용 및 생활폐기물 배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여성비전센터 하반기 교육 수강생 모집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22일부터 '여성비전센터 2026년 하반기 정규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시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와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여성비전센터는 직무역량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 취·창업 지원,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등 고용환경 변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교육에서는 607명 중 561명이 수료(수료율 93%)했고, 종합만족도 92%를 달성했다. 특히 27개 과정에서 274명이 자격증을 취득(취득률 80%)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자격증과 실무 과정을 더욱 강화했다. 재취업과 현업 적용을 목표로 구성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수료 이후에는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사회공헌 등 자발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협동조합 설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 신청은 우선신청과 일반신청으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신청은 7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일반신청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전산 공개추첨으로 수강생을 최종 선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배움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고, 일자리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비전센터(02-2680-2881)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 자립 및 지역사회 상생 협약

이천시가족센터-웰멜트, 다각적 협력 체계 구축 약속

이천시가족센터와 AI소셜벤처 언어교육 기업인 '웰멜트'는 최근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양 기관 연계 체계 구축 및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과 가족생활 관련 서비스를 연계 및 공유함으로써 결혼이민자 및 이천시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건강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이용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행사 정보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상호 연계에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이천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날로 다양해지는 이천시 주민들의 교육 및 복지 수요에 발맞추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에 융합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웰멜트와의 든든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이천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031-631-5521 송하성 기자





마장면 하반기 주민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

이천시 마장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진섭)는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과 인문교양, 직업능력,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 「내 손안의 인공지능(AI) 비서」를 새롭게 개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규 프로그램 「내 손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공지능(AI) 활용법, 문서 작성, 정보 검색, 일정 관리, 이미지 생성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공지능(AI)을 어렵게 느끼는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실습 중심으로 진행해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마장면 평생학습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누리집 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동 마장면장은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민선 9기 이천시 '성수석호' 공식 출범...제1호 공약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계획



민선 9기 성수석 이천시장이 7월 1일 공식 취임하며 4년간의 시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천시는 이날 오전 설봉공원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이천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수석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을 선포하고 ▶미래를 키우는 산업혁신 ▶성장을 연결하는 교통 도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안심도시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일상이 풍요로운 매력도시 ▶평생 안심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8가지 약속을 직접 보고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정 슬로건으로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공표하며,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구상을 전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 이천시민이라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천시장은 취임식 이후 이천시의회,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경찰서, 보훈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다지는 등 본격적인 민선 9기 현장 행보에 나섰다.

제1호 공약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

성수석 이천시장은 최근 민선9기 제1호 공약인 「15만 평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결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추진계획 결재는 공약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천시는 앞으로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준비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이천시의 기존 반도체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연구·실증·창업·인력양성·정주 기능이 결합된 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내 반도체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 연구기관, 대학,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동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창업·스타트업 지원,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 연구자와 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이천시를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실증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성수석 시장은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자 민선9기 시정의 출발점"이라며 "시민께 드린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이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천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2026년

"언어로 넓어지는 아이의 세상"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모 집 요 강

사업내용 주 2회 1:1 언어교육 실시(40분), 최대 12개월 지원

모집대상 이천시 거주중인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자녀
(외국인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가능)

교육장소 센터 내 언어발달교실 *가정방문 불가

신청방법 -센터 방문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
-전화신청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 ☎ 070-4176-5151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1월~12월 연중수시모집
2.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3.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 **수업시간** |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후 주중 주 2회, 2시간(쉬는시간20분포함)수업진행
5. **문의전화** | 031-637-5525

※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맞춤형복지팀) 신청
※ 방문교육은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2026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취업준비교육

누구나 할수있는 1인 1브랜딩, SNS 특강

- 해당 교육은 온라인 브랜딩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 교육일시 : 7/27(월), 13시 ~ 15시
▶ 교육장소 : 센터 313호(가온실)
▶ 교육내용 : 나의 이야기가 기회가 되는, SNS 콘텐츠 활용방법
▶ 신청기간 : 7/6(월) 9시 ~ 선착순 마감
▶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20명
(*센터 취업교육에 참여(예정) 중 혹은
취업을 준비 중인 경우 우선참여)
▶ 신청방법 : 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프로그램 신청
▶ 기타문의 : 사업3팀
☎ 031-631-2267



경기도 이천시 |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2026결혼이민자 취업기초소양

운전면허필기 시험준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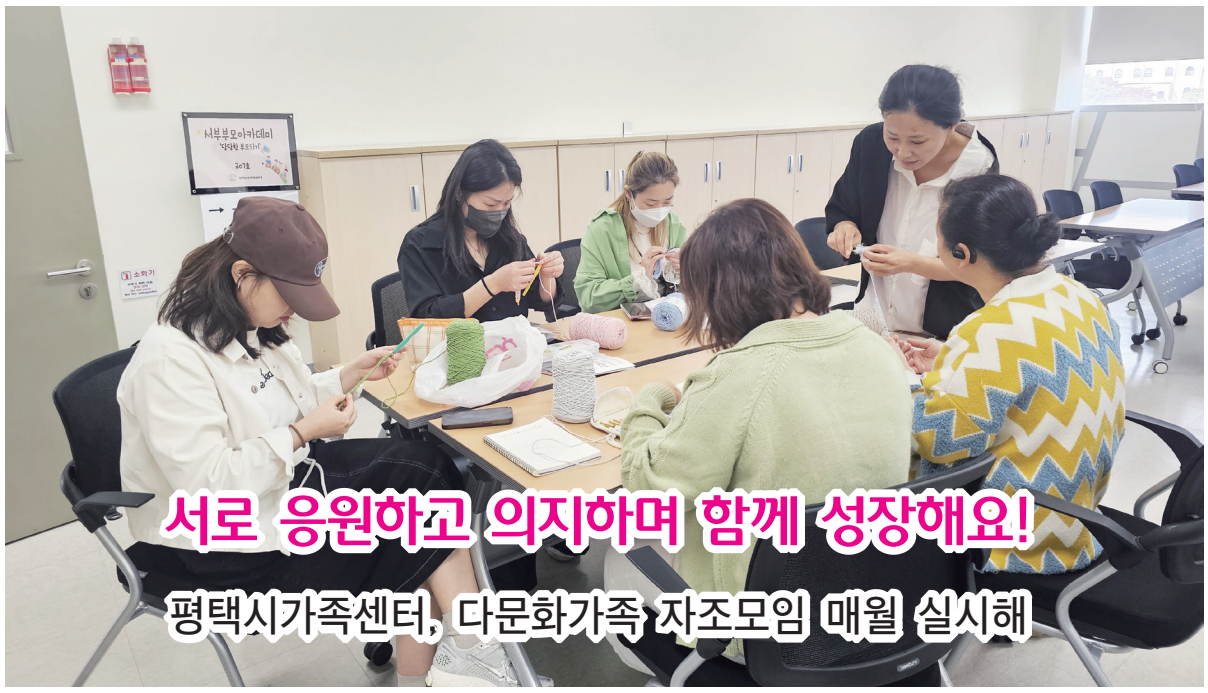
▶ 교육대상 : 이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5명
▶ **교육일정 (8/31~9/9)** : 교육,신체검사, 시험, 학원연계 등

일시	8/31(월) 10시~12시	8/31(월) 13시30분	9/2(수) 10시~12시	9/4(금) 10시~12시	9/7(월) 10시~12시	9/9(수) 10시~12시
내용	이론수업①	신체검사	이론수업②	이론수업③	모의고사	의무교육및 필기시험
장소	센터313호 (가온실)	금강병원	센터313호 (가온실)	센터313호 (가온실)	디지털교육장	대기: 디지털교육장 시험: 가온실
준비물	신분증 & 사진2장					신분증& 응시비 1만원

※ 필기시험 처음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비 1회 무료지원(재시험은 해당없음)

▶ 교육접수 : 7/27(월), 오전9시~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기타문의 : 사업3팀 ☎031-631-2267

이천시 |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회 국적별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중국 자조모임(뜨개질 모임)과 베트남 자조모임(전통무용 모임) 등 2개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같은 출신국의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과 생활 정보를 나누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국의 문화를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최근 중국 자조모임은 뜨개질 활동을 함께하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일상과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자조모임도 전통무용을 배우고 연습하며 모국의 문화를 함께 나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친목을 다지는 것은 물론,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자조모임 참여자들은 "같은 나라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큰 힘이 된다.", "전통문화를 함께 나누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 좋다." 등 자조모임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미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공동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조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참여자 중심의 자조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복지재단이 운영하는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써 다양한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 비상방역체계 가동 속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높은 습도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개인위생 관리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여름철 단골 불청객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철저한 위생관리 필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설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철에는 병원성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해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음식물 보관과 조리 과정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감염병 예방 '6대 수칙'

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6대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했다.

①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②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③물은 끓여 마시기 ④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⑤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⑥칼/도마의 구분 사용과 소독 등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 및 일상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한편, 평택시 보건소는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감염병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올바른 손 씻기와 음식 익혀 먹기 등 일상 속 기본 수칙 실천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라며,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시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성 기자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one-stop support in 20 languages, ranging from receiving damage reports and counseling to connecting with relevant agencies

Did you know that there is a dedicated channel where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can immediately request assistance in 20 languages when they suffer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unpaid wages or sexual violence?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announced that it is achieving substantial relief effects, including a more than six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received within just one month of establishing a dedicated reporting number (No. 1)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t the '1345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stablished and is operating a dedicated reporting numb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foreigners (No. 1) at the consultation counter of the '1345 Foreigners'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hereinafter '1345 Call Center') since May 27, so that foreign workers residing in Korea can more easily and quickly report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unpaid wages, assault, sexual harassment/sexual violence, passport confiscation, and forced labor.

Previously, foreign workers faced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contact multiple agencies depending on the area of consultation to report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now, by simply calling 1345 and pressing '1', they are immediately connected to a dedicated multilingual counselor to file a report or receive counseli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dedicated number (1), the monthly average number of reports was 22, but after its establishment, the number surged approximately 6.4 times to 142 in the first month.

The dedicated reporting number for human rights violations (No. 1) was established to resolve the issue where foreign workers are unable to request help when needed due to language barriers, such as a lack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or a lack of information regarding reporting procedures, and to provide faster relief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rticular, we are operating counseling services in 20 languages to make it easier for foreigners who may be in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employment permit (E-9) workers, seasonal workers (E-8), foreign entertainers (E-6), foreign seamen (E-10), and marriage immigrants, to repor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other damages. In addition, we operate a social media reporting channel for foreign workers who find it difficult to report incidents by phone because they do not have a domestic phone number. By utilizing Facebook pages, which are frequently used by foreign workers, we enable them to report incidents via text, photos, and videos, thereby increasing accessibility to reporting and allowing them to safely request assistance even when making calls is difficult due to noise or other factors within the workplace. To report, search for the Facebook page 'Migrant Rights' or scan the QR code and send a message.

We plan to support the receipt of reports by connecting them with relevant agencies, including Immigrant Rights Protection Officers at 19 immigration offices nationwide, Crime Victim One-Stop Solution Centers, Village Lawyers for Foreigners (a total of 112 nationwide), Regional Labor Offices, and Human Trafficking Victim Rights Protection Agencies, to ensure that practical relief for rights is provided.

〈중략, 한글 기사 15면〉

파파야스토리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ให้บริการ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ใน 20 ภาษา ตั้งแต่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 ให้คำปรึกษา, ไปจนถึงการประสาน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 외국인 인권침해'1345 콜센터 1번'

ทราบหรือไม่? ว่า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 สามารถ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ทันทีผ่านช่องทางเฉพาะที่รองรับถึง 20 ภาษา หากตกเป็น เหยื่อ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เช่น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หรือการ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 เป็นต้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ชอง ซองโฮ) เปิดเผยว่า หลังจากเปิดหมายเลขเฉพาะ(กด 1) สำหรับ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ภายใน "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ส่งผลให้จำนวน 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ภายในเวลาเพียง 1 เดือน เพิ่มขึ้นมากกว่า 6 เท่า เมื่อเทียบกับก่อน 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สะท้อนให้เห็นถึงผลลัพธ์ที่เป็นรูปธรรมในการ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คุ้มครองสิทธิของผู้เสียหายอย่างมีประสิทธิภาพ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หมายเลขเฉพาะ(กด 1) สำหรับ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ขอ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ภายใน "ศูนย์บริการ ข้อมู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 1345 (ต่อไปนี้เรียกว่า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1345")" ตั้งแต่วันที่ 27 พฤษภาคมที่ผ่านมา เพื่อ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พำนักอยู่ใน เกาหลีสามารถ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ในรูปแบบต่างๆ เช่น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การล่วงละเมิดหรือความรุนแรงทางเพศ, การยึด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 และการใช้แรงงานบังคับ 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และรวดเร็วยิ่งขึ้น

ที่ผ่านมา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ต้องติดต่อหลายหน่วยงานตามประเภทของปัญหาหรือ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ทำให้เกิดความไม่สะดวก แต่ปัจจุบันเพียงโทร 1345 แล้วกด 1 ก็จะเชื่อมต่อกับเจ้าหน้าที่ให้คำปรึกษาหลายภาษาที่รับผิดชอบโดยเฉพาะ ได้ทันทีเพื่อแจ้งเหตุหรือขอรับคำปรึกษา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

ก่อนเปิดใช้หมายเลขเฉพาะ(กด 1) มี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เฉลี่ย 22 กรณีต่อเดือน แต่หลังจาก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เพียง 1 เดือน จำนวนการรับแจ้งเหตุ เพิ่มขึ้นเป็น 142 กรณี หรือเพิ่มขึ้นประมาณ 6.4 เท่า

หมายเลขเฉพาะ (กด 1) สำหรับ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จัดทำขึ้น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าที่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ม่สามารถ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 ในยามจำเป็น เนื่องจากอุปสรรคด้านภาษา เช่น การใช้ภาษาเกาหลีได้ไม่เพียงพอ หรือขาดข้อมูลเกี่ยวกับขั้นตอนการแจ้งเหตุ อีกทั้งยังช่วย ให้ผู้ที่ตกเป็นเหยื่อ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ได้รับ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คุ้มครองสิทธิ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ยิ่งขึ้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 รองรับ 20 ภาษา เพื่อ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าจอยู่ใน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ที่ เปราะบาง เช่น แรงงานภายใต้ระบ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 (E-9), 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 (E-8), ศิลปิ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 (E-6), ลูกเรื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E-10) และ ผู้ย้ายถิ่นฐานผ่านการสมรส สามารถแจ้งเหตุ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ละ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ที่ประสบได้อย่างสะดวกยิ่งขึ้น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มีการเปิดช่องทางแจ้งเหตุผ่าน SNS 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ในการแจ้งเหตุทางโทรศัพท์ เนื่องจากยังไม่ได้เปิด ใช้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ในเกาหลี โดยใช้ เพจ Facebook ที่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นิยมใช้งานเป็นประจำ 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แจ้งข้อมูล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ผ่าน ข้อความ, รูปภาพ, และวิดีโอได้ ช่วยเพิ่มความสะดวกในการเข้าถึงช่องทางการแจ้งเหตุ และ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ได้อย่าง ปลอดภัย แม่ในกรณีที่ไม่สามารถสนทนาทางโทรศัพท์ได้ เช่น มีเสียงดังภาย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เป็นต้น

วิธีแจ้งเหตุคือ ค้นหาเพจ Facebook ชื่อ "Migrant Rights" หรือสแกน QR Code จากนั้นส่งข้อความแจ้งเหตุได้ทันที เรื่องร้องเรียนที่ได้รับจะถูกส่งต่อและประสานงานกับหน่วย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น เจ้าหน้าที่คุ้มครองสิทธิผู้อพยพ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중략〉 파파야스토리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임금체불로 고민된다면
다음 지원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무료 법률 구조 지원제도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01. 진정, 고소

밀린 임금을 요구(진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원할 경우

신청방법

1) '민원마당'온라인 > '임금체불 진정'제기
2)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02. 민사소송

밀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혹은 강제집행 원할 경우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확정판결 받은 후 강제집행

임금채권보장제도

(재직,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03. 회사 도산 시

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최대 2,100만원 지원!

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지원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신청서 발급
2)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04.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련 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지원!

대상

퇴직자, 저소득 재직자

지원범위

1)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체불 퇴직급여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또는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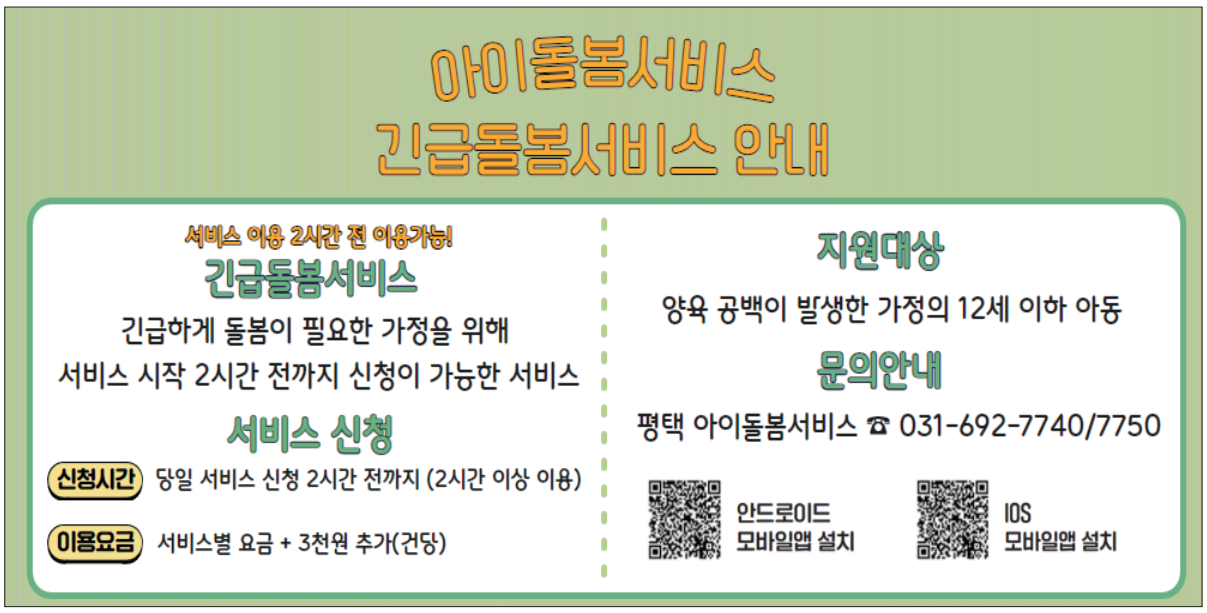
2) 재직자 : 최대 3개월분의 임금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최저임금의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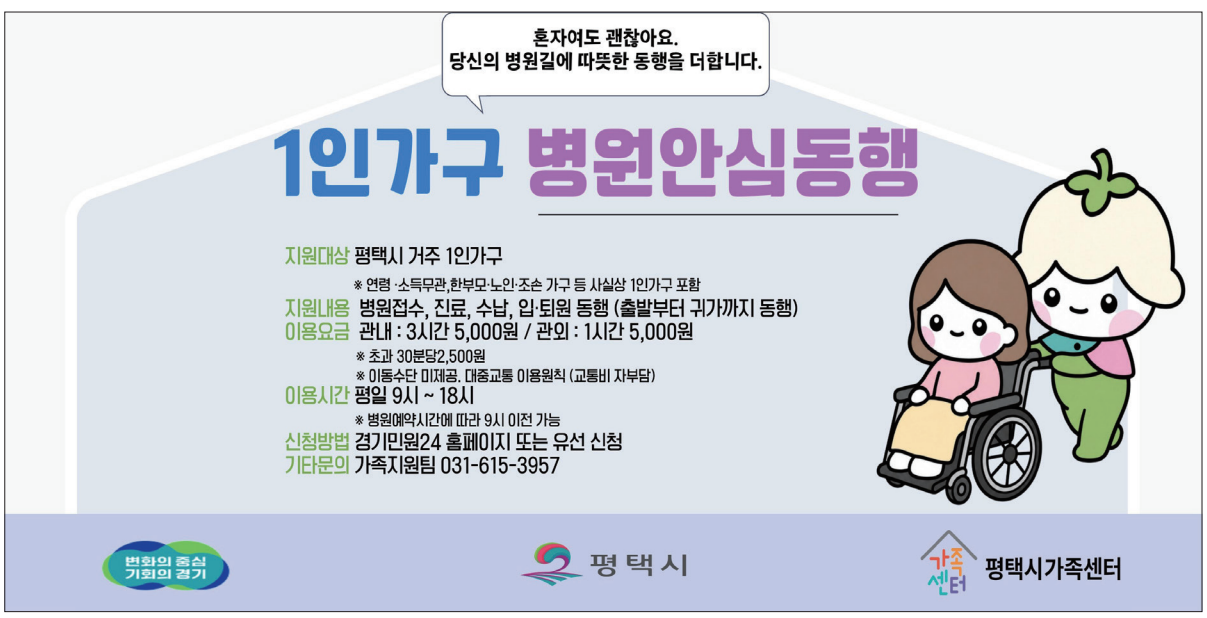
신청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접속
2) 민원접수/신고
3) 간이대지급금 청구









다(多)함께! 요리조리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6월 25일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 「다(多) 함께! 요리조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교류하며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평택시여성지도자연합회(회장 이봉자) 회원들과 결혼이민자 14명이 참여해 「친정엄마와 같이 만드는 행복한 밥상」을 주제로 함께 요리했다.

참여자들은 오이지와 간장 장아찌 등 한국의 전통 음식을 함께 만들며 조리법과 음식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일상과 문화를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친밀감을 쌓았다. 또한 완성된 음식을 함께 나누며 각자의 식문화와 생활 경험을 공유하는 등 자연스럽게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즐거웠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요리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오랜 기간 이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주신 평택시여성지도자연합회 이봉자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퍼포먼스 놀이 미술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2호점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2호점는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관내 2021년~2022년생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퍼포먼스 놀이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한 오감 놀이를 통해 유아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보호자와 함께하는 미술 활동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톡톡톡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무지개 물고기', '가루가 변신해요', '세상에서 젤 큰 아이스크림', '살랑살랑 바람이 불면' 등 다양한 주제의 퍼포먼스 미술 활동에 참여했다. 다양한 재료를 직접 만지고 표현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웠고, 보호자와 함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아이와 함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마음껏 놀이할 수 있어 뜻깊었다.", "집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놀이 미술활동을 통해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은미 센터장은 "놀이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영유아의 창의력과 정서 발달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즐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2026년 여름휴가는 도서관에서

평택시도서관, 강연·공연 등 여름 프로그램

평택시도서관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을 위한 '2026년 여름휴가는 도서관에서'를 운영한다.

관내 도서관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관내 10개 도서관이 참여해 작가와의 만남, 문화 공연, 영화 상영, 만들기 체험,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도서관에서 특별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다리도서관은 「이금이 작가강연」, 「안온 작가강연」, 「그림책수영장」을 운영해 독서의 즐거움과 작가와 소통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안중도서관은 「지브리 영화 모아보기」, 「도서관에서의 하룻밤」, 「여름방학아, 놀자!」 등을 마련해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색다른 도서관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비전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여름」과 「사이언스 매직쇼」를 통해 과학과 독서를 접목한 체험,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산초록도서관은 「달빛따라 숲으로 가요」를 통해 자연 속에서 즐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팽성도서관은 「무더위 힐링 한스푼」, 「숲정류장」, 「스퀴시 키링 만들기」를 운영하고, 장당도서관은 「여행인문학 강연」, 「쉽게 그리는 만화」, 「독서력 특강」으로 시민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높일 예정이다.

세교도서관은 「책 넘기는 손 끝에 스며드는 향」, 「도서관에서 만드는 초대장」, 청북도서관은 「영어스토리텔링」과 「달물빙수」, 오성도서관은 「책갈피 만들기」, 매봉도서관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여름」 특강을 통해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지은 기자

청소년기 패브릭 공예 체험

평택시가족센터, 아빠랑 플레이데이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7월 4일, 센터 다목적실에서 청소년기 자녀와 아버지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 패브릭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천과 부자재를 활용한 패브릭공예 활동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가치를 배우고,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집 모양 패브릭 벽시계와 집 모양 키링, 베개 모양 키링을 만들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작품을 함께 완성했다. 또한 서로의 키링을 꾸며주고, 완성된 작품의 콘셉트를 발표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였다. 특히 같은 재료를 활용했음에도 가족마다 개성이 담긴 다양한 작품이 완성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아빠와 함께 이야기하며 작품을 만들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함께하는 체험 활동의 즐거움과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7월 4일, 홍종열클라이밍 평택비전점에서 2012년~2019년생 자녀를 둔 20가족(40명)을 대상으로 가족 클라이밍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며 건강한 신체활동을 즐기고, 부모와 자녀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함께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전문 강사의 안전교육과 기본 동작을 익힌 뒤 다양한 난이도의 클라이밍 코스에 도전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격려하며 목표 지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소통했으며, 새로운 스포츠를 함께 경험하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키웠다. 또한 각자의 속도에 맞춰 도전을 이어가며 서로를 응원해 현장에는 웃음과 활기가 가득했다.

참여자들은 "딸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최근에는 거의 없었는데,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며 웃고 즐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클라이밍이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강사님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고, 아이와 함께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도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경험은 가족 간 신뢰와 유대감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소통하고 건강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간 소통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진로설계사업 '대학탐방 및 문화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6월 27일, 대전 카이스트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29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 '대학탐방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대학 캠퍼스를 직접 둘러보고 대학생 멘토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과학관 체험을 하며 다양한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진로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캠퍼스를 둘러보고 대학 생활과 입시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과학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동기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뮤지컬 English' 체험형 영어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에서는 6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2020년~2022년생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몸으로 배우는 「뮤지컬 English」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토리를 바탕으로 영어 노래와 신체 표현 활동을 접목한 체험형 영어교육으로,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즐겁게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래와 춤, 다양한 표현 활동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예술성, 표현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영어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신체활동, 스토리텔링, 역할극, 협동 놀이, 알파벳 익히기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친숙한 동화인 '백설공주'를 주제로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히며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도 기를 수 있었다. 반복적인 노래와 신체 표현 활동은 유아들의 집중력과 표현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부모들은 "부끄러움이 많던 아이가 역할극을 통해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 놀라웠다.",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대부분 참가자들이 영어를 놀이처럼 즐기며 배우는 활동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은미 센터장은 "유아기에는 놀이를 통한 경험이 자연스러운 배움으로 이어지는 만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며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3호점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체험·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내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